

정 소 우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미국 시트콤과 영화를 통해
살펴본 남녀간 언어차이

200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인 수 정

미국 시트콤과 영화를 통해
살펴본 남녀간 언어차이

정소우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인 수 정

인 준 서

인수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영어에서 나타나는 남녀간의 언어적 차이를 살펴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성별 언어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남성어와 여성어의 차이 및 특성에 대한 생성요인과 어휘, 문법상의 특징 중 5가지 변항들 즉, 감탄사, so 강조표현, 장벽, 의문문, 부가의문문에 대해 사회언어학자들이 연구, 조사한 내용들을 개관하였다. 그리하여 각 변항들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주장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상의 자연스러운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 미국 시트콤 Friends의 에피소드 35편과, 미국 로맨틱 영화 4편을 대상 텍스트로 삼아 각 변항들의 발화횟수와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 작품에서 나타난 특징들이 기존 학자들의 성별어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만약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아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별의 특징을 구분 지어 주었던 언어형식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일부 변항들에 대해서 역전 현상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는데, 분석 대상 변항들 중 장벽, 의문문, 부가의문문의 경우 기존의 사회언어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주된 원인은 남성지배사회에서 남녀평등 사회로 전환되면서, 여성에 대한 교육의 확대에 인하여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활동이 활발하게 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듯 사회, 문화적 변화로 인하여 여성들은 사회 지배층이었던 남성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내외적으로 요구받게 되어 강하고 단언적인 남성의 표현을 모방하게 되고, 반대로 남성들은 여성어의 특징이라고 일컬어지던 완곡하고 조심스런 어법쪽으로 다가서면서, 남성과 여성간의 언어특징의 차이가 한층 적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감탄사와 강조표현에 대해서는 기존 학자들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두 변항들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재된 감정을 다소 과장되고 풍부하게 표현하려 하는 여성 고유의 순수하고 고정화된 언어형식임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남성어와 여성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그 특성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일부 변항들에 대하여 성별 역전현상을 발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목 차

논문 개요

| | |
|--|----|
| 1. 서론 | 1 |
| 2. 남성어와 여성어의 차이 및 특성 | 3 |
| 2.1 남성어와 여성어의 차이 생성요인 | 3 |
| 2.2 어휘상의 특징 | 17 |
| 2.3 문법상의 특징 | 22 |
| 3. 시트콤과 영화를 통한 남녀간 언어차이 | 30 |
| 3.1 분석방법 | 30 |
| 3.2 분석대상 작품 | 33 |
| 3.2.1 Friends | 34 |
| 3.2.2 Before Sunrise | 35 |
| 3.2.3 Sleepless in Seattle | 36 |
| 3.2.4 How to Lose A Guy in 10 Days | 36 |
| 3.2.5 A Lot Like Love | 38 |

| | |
|------------------------------------|----|
| 3.3 시트콤과 영화를 통해 살펴본 남녀간 언어차이 | 38 |
| 3.3.1 감탄사 | 39 |
| 3.3.2 so 강조표현 | 45 |
| 3.3.3 장벽 | 52 |
| 3.3.4 의문문 | 56 |
| 3.3.5 부가의문문 | 62 |
| 4. 결론 및 제언 | 70 |

자료 출처

참고 문헌

Abstract

표 목 차

| | |
|--|----|
| <표 1> 여성 선호, 비선호 감탄사 (유경애, 1987) | 18 |
| <표 2> 남성과 여성이 사용하는 부가의문문의 기능과 분포율 (Holmes,1984) | 28 |
| <표 3> 시트콤과 영화에 나타난 남녀간 감탄사 발화횟수 | 39 |
| <표 4> 시트콤과 영화에 나타난 남녀간 so 강조표현 발화횟수 | 45 |
| <표 5> 시트콤과 영화에 나타난 남녀간 장벽 발화횟수 | 52 |
| <표 6> 시트콤과 영화에 나타난 남녀간 의문문 발화횟수 | 56 |
| <표 7> 시트콤과 영화에 나타난 남녀간 부가의문문 발화횟수 | 63 |
| <표 8> 시트콤과 영화에 나타난 남성과 여성이 사용하는 부가의문문 기능 | 64 |

1. 서론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르게 말하는가? 만약 그러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는가? 만약 ‘에그머니’ 나 ‘어째’ 같은 간투사나 ‘너무 너무 맛있어요’ 나 ‘정말정말 좋아요’ 라는 과장의 표현법을 남성이 사용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호모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처럼 남성과 여성이 말할 때 각각 그들이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 방식, 문법 등에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Lakoff(1975)는 교사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신이 말하고 있는 언어의 정체성을 인식하여야 하는데 가령 여선생이 무의식적으로 남학생 집단에게 여성의 언어를 가르치게 된다면, 그들이 어떠한 분야에서 활동할 때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논문은 Lakoff의 주장처럼 교사가 학생들을 혼동시키거나 잘못된 어법을 지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자신의 성별에 적합한 표현법을 인지, 습득한 후에 지도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영어교육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미국 시트콤과 영화를 통한 남녀간의 언어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고, 시트콤과 영화를 통한 영어교육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남성어와 여성어의 차이

및 특성에 대하여 사전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2.1에서는 남성어와 여성어의 차이에 대한 생성요인을 생득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심리적 요인으로 나눠 각 특징들을 살펴보고 2.2와 2.3에서는 영어에서 나타나는 어휘상의 특징과 문법상의 특징들에 대한 변항들을 사회적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성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사회언어학자들의 연구결과와 예문이 제시되며, 남성과 여성의 언어 차이에 대한 연구경향의 개관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장에서는 2장에서 다뤘던 변항들 즉, 감탄사, so 강조표현, 장벽표현, 의문문, 부가의문문의 발화 횟수와 특징들에 대해 미국 시트콤 Friends 에피소드 35편과 영화 Before Sunrise, Sleepless in Seattle, How To Lose A Guy in 10 Days, A Lot Like Love를 통하여 살펴보고, 사회언어학자들의 연구결과와 실제로 일치되거나 반하는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4장에서는 결론 및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결론에 대한 원인분석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연구자가 원어민이 아닌 관계로, 실제 살아있는 자연스러운 담화를 연구자료로 이용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으나, 드라마와 영화는 그 시대의 사회전반과 문화를 잘 반영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언어 분석을 위한 조사 자료로 적합하다 판단되었다.

2. 남성어와 여성어의 차이 및 특성

2.1. 남성어와 여성어의 차이 생성요인

O'grady(1999)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언어 차이는 성배제적 차이(Sex-exclusive differentiation)와 성선호적 차이(Sex-preferential differentiation)로 나뉘어진다고 한다.

성배제적 차이란 남성어와 여성어가 서로 다른 유형을 가져 한 언어 유형속에 한 성만 속하고 다른 성은 배제되는 차이를 말하고, 성선호적 차이란 남성어와 여성어가 같은 어휘목록이나 언어적 자질을 사용하지만 그것에 사용되는 상대적 빈도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영어에서 남성어와 여성어는 별도의 패러다임 속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영어의 남성어와 여성어의 차이는 성선호적 차이에 바탕한다고 할 수 있겠다.

김선희, 이석규(1992)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언어가 발생하는 원인을 다음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사회적 역할분담과 직업 때문이다.

밖에서 활동을 하는 남성들은 넓은 활동영역으로 인해 진보적이 되지만, 가정에서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하는 여성들은 자연히 보수적이 되고, 사회활동과 전담업무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는 남성과 달리 사용언어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는 여성은 자연히 바르고 세련된 표준어를 사용하게 된다.

둘째, 생활영역의 차이 때문이다. 남녀간의 서로 다른 활동영역으로 인해 남성의 대화주제는 사업, 정치, 경제, 회계, 법률, 스포츠 등이지만, 여성은 책, 육아, 사소한 일상사, 사람, 요리, 바느질 등이다. 이로 인해 남성은 요리나 색채 관련 단어들에 생소할 테고, 여성은 자동차 부품이나 스포츠 용어 등이 낮설게 느껴질 것이다.

셋째, 기질적 차이이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거칠고, 경직되며, 단호하지만, 여성은 부드럽고, 온순하며 공손하다. 이러한 기질적 차이는 언어에도 반영되어, 남성어에는 격식과 직접표현이 나타나고, 여성어에는 친화력과 간접성이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인들을 바탕으로 영어에 나타나는 성선택적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항에서는 생득적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2.1.1 생득적 요인

생태결정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은 생식기, 목소리, 힘, 체형면에서 차이가 나고, 이러한 차이점은 그들의 개성, 기질, 정서, 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의 차이를 유발하였으며, 오랜 옛날부터 결정되어진 남녀의 역할분담도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분담되었다고 한다. 결국 남녀의 다른 신체기능의 차이로 역할의 차이뿐만 아니라 언어의 차이까지 생성되었다고 본다.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은 남성보다 근육, 체중, 다리가 평균적으로 적거나 짧다.

둘째,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공간 감각이 둔한 편이다. 이러한 이유는 원시시대 이래로 사냥꾼인 남자들이 목표물인 동물을 쫓아가 가족들의 먹이감으로 구해 오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기에 이러한 기능이 발달하여 결국 탁월한 공간지능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셋째, 여성은 일반적으로 색맹이나 왼손잡이가 적다.

넷째, 여성은 남성보다 조숙하며 장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언어적으로도 여성은 남성보다 난독증, 말더듬이, 실어증이 적다.

여섯째, 여성은 언어 능력이 남성보다 우수하다. 이는 어린 아기 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인데, 언어를 습득하는 시기도 여아가 남아보다 조금 빠르고, 모국어 및 외국어 습득면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빠르다.

이러한 이유로 첫째, 좌뇌에 언어를 집중적으로 담당해주는 별도의 기관을 갖고 있는 여자들과는 달리, 이러한 기관을 갖고 있지 않은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부정확하고 불명확한 발음을 구사하며, 짧고 간단한 단답형 문장을 구사한다.

둘째, 원시시대 때부터 남자들은 먹이 추적자로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필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사냥은 비언어적인 신호체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냥꾼인 남자들은 몇 시간이고 가만히 목표동물을 기다리면 되었지만, 가정에서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며, 이웃주민과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여자들은 원활한 의사소통이 그들의 생활에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진화되어 언어면에서 남자보다 우수한 종이 된 것이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비단 생득적 요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로 원시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사회적 과정속에서 남녀간에 부여된 성역할 차이, 즉 사냥꾼이고 가정의 보호자이며 개척자인 남성과 가정 수호자이며 자녀 양육자인 여성의 역할분담이 남성과 여성의 서로 상이한 행동과 능력을 발달시켰고, 그러한 기능이 강화된 나머지 남녀간의 언어차이가 생기게 된 것이다.

다음은 생득적 요인 중 남성과 여성의 다른 음성, 음높이 및 발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① 음성 & 음높이

남성과 여성은 첫째, 발성기관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가장 두드러진 점은 갑상연골 (thyroid)로, 여성과 여자아이는 평균 120도로 평평한 편이지만, 성인 남자의 경우 90도나 되어 앞 목 부분이 상당히 튀어 나왔는데 이는 음색, 음폭, 음의 고저 전반에 영향을 준다. 남성은 후두가 크고, 이는 긴 성대를 이뤄 느린 진동을 가능하게 하며 남성 특유의 저음을 만들고, 여성은 남성보다 성대가 얇고, 여성 특유의 G음성이 나온다.

둘째, Graddol , Swann (1989)에 따르면, 평균 음높이(pitch)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음성학적 측면에서 보면 사람의 가청주파수는 20~ 20000hz인데 언어음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는 100~ 400hz정도라고 한다. 남성의 경우 기본 주파수는 120hz이고, 성대 진동의 주파수가 1초에 80Hz~200Hz인데 반해 여성의 경우는 기본 주파수가 220hz이고, 400Hz까지 올라가 남성보다 더 높게 발음한다고 한다.

또한 Bolinger(1975)는 남성은 사춘기~40세까지 음높이가 떨어지다가 60세

쯤부터 다시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러한 음성학적 변화는 생물학적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셋째, 여성의 음성이 남성의 것보다 더 동적인 패턴을 보인다고 하는데, 여성은 자신이 가진 음역의 범위 내에서 더 동적인 음조를 구사하며, 음량과 소리의 빠르기에 있어서 더욱 신속하고 두드러지게 이동한다고 한다.

Bennet & Weinsberg (1975)는 테이프에 녹음된 말을 피험자들에게 들려주고 화자의 남성적, 여성적 경향을 평가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리듬과 음조패턴에 있어 여자는 변화가 다양한 쪽에, 남자는 변화가 덜한 쪽에 각각 판별을 받았다고 한다.

넷째, Farb (1980)는 여성은 남성보다 더 분명한 발음을 한다고 하는데 영어에서도 여성의 목소리는 남성보다 고저의 폭이 넓고, 강세를 받는 음절 사이를 미끄러지듯 빨리 발음하여 가끔씩 음역이 높아진다고 한다.

다음은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발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② 발음

Fischer(1958)는 뉴잉글랜드 지역 소년소녀 각각 12명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다른 발음현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하였는데 실험결과 남자아이들에게서 /-g /탈락 현상(deletion)이 나타났다고 한다.

walking, raining과 같은 동사 -ing 발음에 대하여 12명의 소년들 중 7명이 /-ɪn/으로 발음하였고, 소녀들은 12명 중 거의 대다수인 10명이 /-ɪŋ/으로 정확하게 발음하였다는 것이다.

Wolfram(1969)은 디트로이트 지역 거주 아프리카계 흑인들을 대상으로 실험

험을 하였는데 그 결과, 이 피험자 집단 역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위세형인 모음 후행 /-r/을 더 많이 발음하였다고 한다. 예를 들어 bird를 발음할 때 남성들이 **버드**라고 발음하는 데 비하여 여성은 **버얼드**라고 발음하는 경향이 컸다.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은 동일한 사회계급이면서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자리에 있을 경우 여성들이 더욱 더 정확한 발음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Trudgill(1972)은 상황맥락은 발음에 관한 실험에서 피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격식을 갖춘 상황맥락 안에서는 동일한 계급의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표준변이형(standard variety)이나 권위있는 말(prestige accent)을 사용한다고 한다.

위의 모든 연구 결과와 주장을 분석해보면 연령, 인종, 신분계급을 망라하고,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더 정확하고 좋은 발음(advanced pronunciation)을 구사하고, 이러한 성향은 격식과 매너가 요구되는 자리에서 더욱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표준어나 품위 있는 어조에 가까운 형태의 발음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여성들이 정확한 발음과 표준어 지향 어조를 사용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인을 대하는 여성의 태도에 의한 것으로, 청자중심의 언어태도를 가진 여성들은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언어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이는 친화력과 친밀감을 중시하는 여성의 대화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외적인 모습과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여성의 태도 때문인데, 여성들은 세련되고 정확하며 고상한 언어를 구사함으로써 여성다움을 실현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셋째, 여성은 예절바르고, 세련되게 행동하도록 사회화되었기 때문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언어형식, 즉 올바르고, 교양있는 언어를 구사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외부의 멸시와,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일종의 불안감 때문이다. 이는 Labov(1966)의 ‘언어적 불안정성’ 이라고 불리는 개념으로 조심스러운 언어행동으로 대변되는 여성들의 불안정한 언어형태가 그들을 문화적 2류로 귀속시키고 위계적 성 체계 내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불안정성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넷째, 여성의 표준말 구사 노력과 시도는 사회가 남성에게만 부여하는 숨겨진 위세 (covert prestige)의 부재 때문이다.

Trudgill(1972)은 겉으로 표출되진 않지만, 표준어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숨겨진 위세’를 보유하고 있는 남성들과 달리, 특혜는 고사하고 평등한 대우조차 받지 못하는 여성들은, 표준어를 구사하여 공개적으로 사회적 특권을 부여받으려는 의도로 인해 생긴 결과라고 하였다.

다섯째로, 표준어 사용을 요구받는 직업들을 여성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이 거의 포진되어 있는 유치원, 초, 중등학교 선생님, 비서, 승무원, 접수 요원, 상담원 같은 직업들은 정확한 메시지 전달과 좋은 이미지 구축을 위해 원하든 원치않든 표준어나 위세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2.1.2 사회 문화적 요인

언어는 추상적인 단일체계가 아니라, 다양한 변이형(variat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성별, 직업, 나이, 인종, 지역적 위치 등에 따라 언어의 차이를 기술할 수 있는데 이는 언어연구가 언어사용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Sapir(1929)에 따르면 언어는 세상의 현상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고 독특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성은 인간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속해있는 사회와 문화적 전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인간이 속해있는 사회와 문화는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 속에 존재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성별에 따른 사회적 역할에 대한 압력을 작용하여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말하도록 유도하고 결국 이러한 외부적, 내부적인 압력은 남성어와 여성어가 생성되게 된 원인이 되었다.

다음은 남성어와 여성어의 사회 문화적 생성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언어의 성차이는 사회적 금기현상(taboo)에 대한 결과 때문이다.

영어에서는 종교적, 도덕적 이유로 남성이나 여성이 사용하기를 꺼리는 표현이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금기어들은 대부분 욕설이나 속어들로 이는 언어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되고, 이런 금기어를 사용한다면 사회적으로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Lakoff(1975)는 만약 어떤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러한 상황에 접하지 않기 위해 대응어, 다시 말해 완곡어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아래 (1)은 기존에 사용하였던 직업어들을 좀 더 격식있고,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 (1) 기존용어 | 완곡어 |
|-------------------------|---|
| undertaker (염꾼) | funeral director , mortician (장례기획인) (장례인) |
| cleaning woman (청소부) | domestic (가정부) |
| janitor (문지기) | concierge (관리인) |

둘째, 언어의 성차이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 때문이다.

언어는 사회 태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사회는 남녀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따르는 서로 다른 행동을 기대하기에,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사회 가치관과 성 역할은 실질적으로 언어 변이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언어의 성차이는 사회 내에 만연되어 있는 남성우월주의에 기인한 것이다.

① 짝대립어와 통성명사

언어는 사회내에서 우월한 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배집단의 언어와 피지배집단의 언어가 다르고, 남성중심주의의 사회구조가 언어에 반영되

어 짝대립어(paired word)와 통성명사(generic noun)에서 남성이 우선시되는 언어관을 확립시켰다. 먼저 짝대립어의 의미와 현상에 대해 살펴보자.

Bonvillain(2002)은 인간을 지칭하는 단어들은 종종 남성과 여성을 한 쌍으로 이뤄 존재하는데 보통의 용법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앞서고, 위치상 여성은 두 번째 자리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 아래 (2)는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2) man and woman, husband and wife, son and daughter, male and female, brother and sister, adam and eve, king and queen

이 같은 단어의 쌍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남성의 기본적인 지위를 나타내는데 다시 말해서 더 중요한 요소가 문장 내에서 더 앞에 놓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과 반대되는 경우로, ladies and gentlemen과 bride and groom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Greenbaum & Quirk(1990)가 ladies and gentlemen은 장단 단격 운율이 gentlemen and ladies의 덜 균형잡힌 운율보다 좋기 때문에 여성을 먼저 사용했다고 주장한 반면, Bonvillain(2002)은 남성의 기사도적 행동의 발로 때문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bride and groom의 경우에는 의식이라는 격식을 갖춘 상황과 관련된 관습적 표현이나, 일단 결혼식이 끝나면 bride and groom에서 husband and wife로 바뀌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처럼 남성형이 우선되는 짝대립어 현상은 남성중심적 사회구조를 유지, 지속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

다음으로 남성형을 기본으로 하는 통성명사에 대해 살펴보자.

Bonvillain(2002)은 통성명사는 일반적으로 성의 구분 없이 사람을 가리킬 때 남성형을 기본으로 하고 총칭 he와 man을 사용한다고 한다. 문법학자들은 일반적으로 he가 ‘사람’을 지칭하는 고유대명사로 사용하게 된 것이 18세기 무렵이고, 그 이전에는 they가 단, 복수 총칭대명사로 쓰였다고 한다.

이 때 인간이라는 뜻의 human은 man과 he를 대신하여 표현된다.

(3) Every humanbeing at every stage of history or pre-history is born into a society and from **his** earliest years is moulded by that society.

(<http://dic.impact.pe.kr>)

모든 인간은 역사의 모든 단계 또는 선사시대에서도 사회 속으로 태어나고 또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사회에 의해 틀이 만들어진다는 뜻으로 모든 인간들이 어렸을 때부터라는 표현에 대해 **his and her** earliest years가 아닌 **his** earliest years로 표현된다.

② 여성형의 어휘적 결핍

여성을 묘사하는 단어가 고유의 형태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남성형의 단어 뒤에 -ess, -ett등의 접사를 붙여 생성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예를 살펴보고도록 하자.

| | |
|-----------|--------------|
| (4) 남성 | 여성 |
| steward | stewardess |
| actor | actress |
| poet | poetess |
| author | authoress |
| arbiter | arbitress |
| abbe | abbess |
| astronaut | astronette |
| bachelor | bachelorette |

위 (4)에서 actor, poet, author, arbiter 등은 통성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접사 -ess를 붙여 여성을 상징하는 명사를 만들었는데, 심지어 여류작가라는 뜻의 authoress는 경멸의 의미로 쓰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통성명사 앞에 단어를 붙여 여성형을 뜻하는 단어가 생성되기도 하는데, Lakoff(1975)는 doctor, cellist란 단어 앞에 각각 여성을 뜻하는 lady와 woman을 붙여 lady doctor, woman cellist와 같은 여성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Bonvillain(2002)은 여자의 이름도 남자 고유의 이름에서 따올 수 있다고 하였는데 아래 (5)는 남자의 이름 뒤에 여성형 어미 -a, -ette, -ine, -y(혹은 -ie)를 붙여 여자이름으로 생성된 예이다.

| | |
|----------|------------|
| (5) 남자이름 | 여자이름 |
| Robert | Roberta |
| Bernad | Bernadette |
| Gerald | Geraldine |
| Stephan | Stephanie |

넷째, 언어의 성차이는 친족관계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생성되었다. 영어에서 가족과 친인척들의 체계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father and mother, brother and sister, uncle and aunt, nephew and niece, son and daughter과 같은 성별분리어가 생성된 것이다.

지금까지 성별에 따른 남녀 언어의 차이점에 대하여 사회 문화적 요인에 대한 4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는데 다음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남녀간 언어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2.1.3 심리적 요인

언어는 한 인간의 사고와 심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수단이며,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사고를 형성한다. 즉 언어와 인간의 사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성어와 여성어의 생성원인에 대해 심리적인 차이를 들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남성과 여성의 언어차이는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의식 때문이다.

Trudgill(1974) & Wardhaugh(1986)에 의하면 남성은 자신의 업무, 행위, 업적 등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평가를 받지만, 여성은 자신의 외모, 성격, 언행 등 자신이 보여지는 것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이로 인해 여성은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형식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되고, 남성보다 더 정확한 발음과 표준형 어조를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사회의 평가와 잣대에 민감해진다.

이는 사회적 압력이 여성들에게 더 강하게 미치기 때문에, 여성들은 정확하고 반듯한 언어형태를 구사해야 한다는 잠재의식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반대로 남성들은 바르고, 정확한 어법을 여성의 전유물로 간주하여 여성관련문체를 거절하는 언어규범으로 나아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남성들은 거칠고 강한 하류계층의 언어를 남성적이고 사나이답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가치를 부여하고 모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남성어와 여성어가 다르게 존재한다고 믿는 사회태도 때문이다. Kramarae(1981)는 남성어와 여성어가 다르다는 것을 뒷받침해 줄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성어와 여성어가 상이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여성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의 행동을 바꾸고, 결국 언어까지 바꾸게 만든다고 한다.

셋째, Kramarae(1981)는 여성을 지배집단인 남성에게 지배받는 침묵집단(muted group)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성은 남성의 언어에 예속된 언어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표현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남자가 여자의 말을 이해하기는 여자가 남자의 말을 이해하기보다 더 어려워 남녀간의 의

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남성어와 여성어의 생성원인에 대해 생물학적, 사회 문화적, 심리적 요인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볼 때, 남녀간의 다른 언어차이는 각각의 독립된 요소로 인해 생성된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연결적이고 보완적이며, 총체적 관계로 형성되어 나타난 언어현상으로 이해할 때 남성어와 여성어의 존재와 의미에 대해 보다 더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된다.

2.2. 어휘상의 특징

성별언어는 어떤 어휘가 남성이나 여성에 대해서 특이하게 쓰이는 어휘인 대상어(objective genderlect)와 남성과 여성이 특유하게 발화하는 발화어(utterable genderlect)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남성어는 남성에 대해서 주로 쓰이는 남성 대상어와 남성들이 특유하게 발화하는 남성 발화어로 나뉘며, 여성어는 여성에 대해서 주로 쓰는 여성 대상어와 여성들이 특유하게 발화하는 여성 발화어로 나뉜다. 성차이어와 성차별어도 결국 이러한 대상어와 발화어에서 발견될 수 있는 현상인데 이제부터 성차이어의 관점에서 영어의 여성발화어를 중심으로 나타난 현상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2.2.1부터 2.2.3까지는 여성이 즐겨 사용한다고 하는 감탄사, 강조표현, 장벽에 대한 사회언어학자들의 연구와 결과에 대하여 개관하고자 한다.

2.2.1 감탄사

풍부한 감성의 소유자인 여성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감정을 보다 적극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간투사를 사용하는데, 여성들이 주로 즐겨 사용하는 감탄사는 다음과 같다.

(6) oh dear, oh my, oh dear me, gracious, goodness, god, gosh, oh my god, heavenly days, shucks, fudge

유경애(1987)는 여성들이 놀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감탄사 중에도 그들이 선호하는 감탄사와, 사용하기 꺼려하는 감탄사가 있다고 한다.

<표 1> 여성 선호, 비선호 감탄사

| 선호 감탄사 | 비선호 감탄사 |
|----------------------|-------------------|
| Oh my! | Who the devil! |
| Oh dear (me)! | What the deckens! |
| My godness(gracious) | Good heavens! |
| Good gracious! | (Bull) shit! |
| Gracious me! | Great scott! |
| wow! | Great caesar! |
| Heavenly days! | Great sun! |
| Shucks! | (God) damn it! |
| God! | |
| Gosh! | |
| Gee Whiz! | |
| Well, to be sure! | |

이러한 감탄사들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화자의 성별을 판별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풍부한 감정의 소유자인 여성들은 놀람이나 기쁨, 슬픔 등의 감정을 솔직하게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때로는 과장된 감정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Lakoff(1975)는 여성들이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oh dear, oh my god, oh fudge' 와 같은 간투사를 사용한다고 하였고, 이렇게 사용되는 감탄사가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고 있지만 남녀 성별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간투사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다르게 사용하는 간투사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반영하는 동시에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의 기대 및 대우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하였다. 남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기 위하여 거칠고 강한 간투사를 사용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외부의 압력과 제재로 인해 좀 더 부드럽고, 약한 감탄사를 사용한다고 한다는 것이다. 아래 (7)은 남성과 여성이 동일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예문이다.

- (7) a. **Oh dear.** you've put the peanut butter in the refrigerator again.
b. **Shit,** you've put the peanut butter in the refrigerator again.

위 (7)의 두 문장을 통하여 우리는 a는 여성이, b는 남성이 발화하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a를 남성이, b를 여성이 사용하였다면 남성답지 못하고, 여성답지 못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2.2.2 강조표현

여성들이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기 위하여 감탄사를 자주 사용한다는 점은 이미 전항에서 논의가 되었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이성보다 감성이 발달하였고, 개념적이기보다는 감각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다소 과장해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Bolinger(1975), Farb(1980), Key(1975) 에 따르면 여성들은 과장된 감정표현을 선호하고 이를 통하여 감성어법을 실현하기 때문에 so, such, quite just, never 등의 강한 강조사를 자주 사용한다고 하였다.

Lakoff(1975)는 남녀 공용의 중립 형용사 즉, 남자와 여자 모두 사용하는 형용사 표현이 있는 반면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여성 형용사가 있다고 한다. 아래 (8)을 살펴보자.

| | |
|-----------------------------|---|
| (8) 남 / 여 공용 형용사 | 여성 형용사 |
| great, terrific, cool, neat | adorable, charming, sweet, lovely, divine |

그녀는 이처럼 여성은 남성보다 더 다양한 형용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여성들은 I love him이라고 말해도 되는 상황에서도 I love him **so** much.라고 표현하여 자신의 감정을 강력하게 표현한다고 한다.

Jespersion(1922)은 강조사 so는 원래 so~that 문장의 형태에서 유래한 일종의 정지문장이라고 하였는데, 가령 “I’m so glad you’ve come”이라는 문장은 뒤에 that절의 형태로 된 어떤 보어가 필요하여 “so glad that I really must kiss you”, “so glad that I must treat you to do something extra” 등의 결과

적인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강조사 so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정지문장이 감탄조의 여성언어에서 자주 나타난다는 사실에 대한 이유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전에 생각해 보지 않고 말문을 여는 여성들의 특성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김선희, 이석규(1992)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의사소통시 청자를 배려하는 여성의 태도를 반영한 친밀감의 표현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2.2.3 장벽

자신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확신이 서지 않거나, 진술한 내용에 정확성을 단언할 수 없을 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울타리 역할을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를 장벽이라고 한다.

(9) I think, I am sure, You know, I guess, I wonder, sort of (kind of), perhaps (maybe).

Lakoff(1975)는 여성의 발화에서 남성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장벽사용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여성은 강하게 단언하는 것이 좋지 않고, 숙녀답지 못하며, 심지어 여성답지 못하다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사회화되어진 것이라고 한다. 결국 울타리 표현은 사회적인 통제를 반영하고 여성들로 하여금 타인과의 마찰을 피하고, 존중하도록 규범화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타인과의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예절을 지

키려는 여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운 표현방식으로 인하여 우유부단하고 명시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Preisler(1986)는 성별에 따른 장벽사용 횟수를 좀 더 세분화된 변항을 바탕으로 하여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조사했는데, 혼성 대화 참여자는 20~25세, 40~45세의 두 집단으로 나뉘었고, 직업도 3부류로 나뉘었으며, 토론 주제는 아이에게 가해지는 체벌과 TV상에 보여지는 폭행에 관련된 것이었다. 그의 연구 분석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장벽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여성어를 중심으로 영어의 발화어 측면에서 바라본 감탄사, 형용사와 부사를 통한 강조표현과 장벽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항에서는 영어의 문법상의 특징 중 여성들이 주로 사용한다고 하는 의문문과 부가의문문에 대하여 살펴보자.

2.3. 문법상의 특징

영어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언어에서 두드러진 문법적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성별에 따라 특정한 문장성분이나 문장형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영어에서 성별에 따른 문법의 특징에 대한 사회언어학자들의 연구와 결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2.3.1 의문문

김선희, 이석규(1991)에 따르면 자신의 주장이나 단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서술문을 더 많이 사용하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직접적이고 단정적인 표현보다는 질문의 형식을 빌어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Brouwer, Gerritsen, Hann(1979)은 대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의문문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남녀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들은 암스테르담 중앙역 티켓구매자의 언어행동을 분석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질문을 한다는 것을 밝혔는데, 그 이유로 여성이 정보를 요구하는데 있어 사회적으로 남성보다 억압을 덜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Fishman(1980)의 연구결과에서도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은 의문문을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그녀는 여성들은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문문을 사용하고, 의문문은 여성들에게 있어 사람으로부터 주목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Lakoff(1975) 역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은 의문문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이유로 오랜 세월동안 여성들은 사회적 억압과 불평등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자연적으로 불안정하게 되고, 점점 그러한 현상이 언어의 고착현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3.2 부가의문문

부가의문문이란 화자가 평서문의 형태로 발화한 후 자신의 진술에 대해 질

문을 하는 형식으로 꼬리를 붙이는 문장을 뜻한다.

Lakoff(1975)는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부가의문문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이유로 첫째, 자신감이 결여되어 상대방의 대답을 통해 그 결여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라고 하였고, 둘째, 자신의 주장을 완화시킴으로써 화자와의 갈등관계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화자가 명령법 형식을 취해서 얘기하거나 단정적으로 진술할 경우, 청자는 화자가 바라는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여성들은 부가의문문을 통하여 화자의 강한 진술을 완화시킴으로 청자로 하여금 명령이나 부탁, 제안 등을 거절하거나 부정하지 못하는 임의성을 제공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가의문문의 사용은 청자를 배려하는 태도와 상호인간적인 측면이 고려되는 공손화법으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때로 청자로 하여금 화자가 자기확신과 신념이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시킬 수 있으며 자신의 주장이나 요구사항을 제시할 때 불리한 요소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Sachs(1987)는 두 살에서 다섯 살까지 어린아이들의 언어사용을 연구한 결과, 소녀들이 소년들보다 두 배나 더 많은 부가의문문을 사용했다고 하였고, Siegler(1976)는 성인을 대상으로 특정문장을 제시하면서 남녀 중 누구의 대화 같은지 물어보았는데 피험자들은 부가의문문을 제시하였을 때 여자의 대화체라고 대답하였고, 부가의문문이 아닌 문장을 제시하였을 때는 남자의 대화체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¹⁾

더 나아가 Holmes(1992)는 부가의문문의 기능 4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

1) 그러나 부가의문문을 사용함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크게 미치지 않는다는 Dubois & Crouch(1975)의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경우도 있었다.

였는데 첫째, 부가의문문은 청자에게 정보를 요구하거나, 화자가 자기 확신이 없는 불확실한 진술에 대해 청자에게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쓰인다고 한다. 이를 확인적 부가의문문(modal tag)이라고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예문을 함께 살펴보자.

(10) Susan is a University student. She is telling her friend and flatmates about her experience at school.

Susan : I did my exams in sixty three. **Was it?**

위 (10)의 예문을 보면, 수잔은 자신이 시험을 치렀던 강의실 호수가 정확히 기억나질 않아 부가의문문을 사용하여 친구들에게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의문점을 확인한다. 즉 여기에서의 부가의문문의 사용은 수잔의 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주장에 대한 지시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부가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 대해 흥미나 관심을 일으킬 때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를 정의적 부가의문문(affective tag)이라고 한다. 정의적 부가의문문은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대화에 계속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부가의문문은 대화의 주제를 제공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게끔 배려하는 촉진적 기능(facilitative function)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교사, 인터뷰어, 파티주최자들이 성공적인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에 해당되는 예문을 살펴보자.

(11) [Mrs. Short is a primary school teacher working with a group of 5-year-olds. They are preparing for a nature walk by looking at picture of birds, flowers and leaves that they hope to see on their walk.]

Mrs. Short : Here's a pretty one what 's this one called Simon?

Simon : Mm, erm [pause]

Mrs. Short : See it's tail. Look at it's tail. It's a fantail, **isn't it?**

Simon : Mm a fantail. I have seen one of them.

위 (11)의 대화에서 교사는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알지 못해 머뭇거리는 학생에게 정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부가의문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의 부가의문문은 학생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게 하고, 정답을 맞힐 수 있게끔 배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 번째로 정의적 부가의문문의 두 번째 기능으로, 직접적인 지시나 명령, 비판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12) [Zoe and her mother Claire have just come home from the supermarket. Zoe empties the shopping basket all over the kitchen floor.]

Claire : That was a bit of a daft thing to do, **wasn't it?**

쇼핑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조와 엄마 클레어. 구입한 물품을 죄다 부엌바닥에 쏟아 버리는 조의 모습을 본 엄마는 딸의 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부가의문문을 사용하여 완화된 비난방법(softening function)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부가의문문은 비협조적인 청자로 하여금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직접적이고 고압적인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직접대면의 기능(confrontational function)을 갖는다.

(13) [A police superintendent is interviewing a detective constable and is criticising the constable's performance.]

a: ... you'll probably find yourself un before the Chief Constable, okay?

b: Yes, Sir, yes, understood.

a: Now you're fully understood that, **don't you?**

b: Yes, Sir, indeed, yeah.

경찰 관리자가 한 경관의 업무수행에 대해 비판하고, 경찰서장이 그 경관을 근시일내로 호출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부가의문문을 사용한 재질문을 통하여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경관에게 위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Holmes(1984)는 다양한 부가의문문의 기능과 화자의 성을 고려한 남성과

여성의 대화자료를 근거로 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남성과 여성의 부가의문문 기능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2> 남성과 여성이 사용하는 부가의문문의 기능 (%)

| 부가의문문 개수 | | |
|----------|---------|---------|
| 의미유형 | 남성 | 여성 |
| 확인적 | 24(61%) | 18(35%) |
| 정의적 | | |
| 촉진적 | 10(25%) | 30(59%) |
| 완화적 | 5(13%) | 3(6%) |
| 총계 | 39 | 51 |

<표 2>에서 보여주듯이, 그는 남성의 61%가 자신의 발화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 화자 지향적 부가의문문을 사용하는 반면 여성의 65%가 청자를 대화에 참여시키기 위해 청자 지향적 부가의문문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는 달리 Lakoff (1975)는 여성들이 자신의 발화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보나 확인차원에서 화자 지향적 부가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가의문문은 자신의 의견에 대한 강하고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좀 더 부드럽고 완만하게 돌려 말하고 청자의 동의나 어떠한 사실에 대한 확인을 위한 간접적 표현이기 때문에 강한 발언을 많이 사용하는

남성들보다 약한 발언을 많이 하는 여성들이게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언어특징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2.3.1 의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성지배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남성이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강하고 단정적인 평서문의 서술형 문장형식 대신 부드럽고 애교스럽게 의향을 묻거나, 확인을 하는 부가의문문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남성과 여성의 다른 언어특징을 어휘와 문법으로 나눠 여성발화어를 중심으로 몇 가지 변항들을 살펴보았는데, 남성과 여성의 언어표현에 나타나는 특징들은 단순히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생성된 것이 아니고, 생득적 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문화적으로 정립되고, 관습화된 현상이 어우러져 결국 고정화되어진 것이라 판단된다.

3. 시트콤과 영화를 통한 남녀간 언어차이

3.1. 분석방법

시트콤과 영화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경우 교사는 가능한 학생들의 성별과 동일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 자료로 수업을 하여야 하고, 자신의 성별에 알맞은 어법을 구사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가령 교사가 남학생 집단에서 여성 주인공의 과장된 언어표현이 많이 나타나는 영화를 이용하여 수업을 할 경우, 학생들이 반대 성별의 어법을 체득하여 영어로 담화를 나누게 된다면 이는 필시 어색하고 이상한 발화형식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시트콤과 영화의 대본을 쓸 때, 작가는 의도적으로 등장인물에 따라 언어를 선택, 배정시키고 남녀노소, 출신지역, 성격, 학력, 지위와 사회 계급 등을 고려하여 그에 어울리는 언어를 부여함으로써 작품의 사실감을 높인다. 따라서 영어사용에 대한 현지 조사가 어려운 지금의 시점에서 연구자는 실제 발화표현을 현장감 있고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시트콤과 영화를 선택하여, 남녀간의 언어차이의 현상에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희곡이나 소설을 통한 언어 분석의 단점은 등장인물들의 언어가 단지 작가 한 사람에 의해서 구성되어졌기 때문에 작가 자신의 독특한 문체나 언어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과 작가가 인물들의 성격, 작품 분위기, 주제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언어를 선택, 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경우에 따라 어떤 주인공의 언어는 사실보다 과장되거나 또는 첨삭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는 남녀간의 언어차이를 분석하는데 있어 문제점으로 제기되지 않을 것이, 만약 작가들이 여자 주인공이나 남자 주인공에게 여성다운 어투 혹은 남성다운 어투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성별에 따른 언어차이를 입증하려는 본 논문의 취지에 알맞은 예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비의도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언어를 배정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의도성이 배제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언어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연구자가 분석자료로 선택한 시트콤과 영화는 A lot like love를 제외하고 시나리오 작가가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쪽 성에 치우쳐진 어투나 표현 가능성이 많이 배제되어 가급적 균형있는 발화표현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언어 분석 자료로서 선정된 작품은 미국 시트콤 Friends(시즌 I 23편, 시즌 II 12편) 에피소드 35편과 미국 로맨틱 영화 4편; Before Sunrise, Sleepless in Seattle, How to Lose A Guy in 10 Days, A Lot Like You로 모두 미국작품들이다.

시트콤과 로맨틱 영화가 분석자료로 선택된 이유는 작품 자체가 모두 일상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 소설이나 희곡보다 실제적인 발화표현을 조사하는데 있어 보다 더 적합한 자료라 판단됐다. 또한 영화장르로 로맨틱 영화가 선정된 이유는 첫째, 장르 특성상 남자, 여자 주인공이 꼭 등장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발화특징과 차이점을 조사할 수 있고, 둘째,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발화를 가장 근접하게 재현한 장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선정된 다섯 작품들 중 Sleepless in Seattle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모두 의도적으로 선택되었는데 Friends의 경우 비슷한 연령대의 다양한 캐릭터의 젊은 미혼 남성들과 여성들이 등장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해 솔직 담백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기 때문이고, Before Sunrise와 A Lot Like Love는 여행 중에 우연히 만난 두 젊은 남녀가 중심이 되어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남녀 주인공간의 대화가 타 영화에 비해 많아 분석자료로 최적이라 판단되어, 조사 자료로써 채택되었다. 특히 A lot Like Love를 분석대상자료로 선택한 이유는 첫째, 다른 분석대상 시트콤과 영화들과 달리 남녀 혼성작가가 아닌 남자 작가 한사람에 의해서만 시나리오가 이루어졌기에 다른 영화에서 나오는 남성과 여성 발화특징과는 차별화된 어떤 특징이 발견되지 않을까 추측하였고, 둘째, 두 주인공의 캐릭터가 남성은 심약하고 우유부단한 반면 여성은 강인하고 독립심이 강한 인물로 등장하기에 그 동안 사회언어학자들이 주장해 온 남성과 여성언어 특징의 역전현상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살펴보기 위한 의도성이 내포되어 있었다. 나머지 두 작품 중 Sleepless in Seattle은 어떠한 의도없이 임의로 선택된 자료이지만 How to Lose A guy in 10 Days는 남녀 주인공간의 밀고 당기는 심리전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들의 두뇌 싸움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언어형식이 성별간의 특성으로 표출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하에 선택하였다.

먼저 분석작품들 모두 20, 30대의 젊은 남성과 여성들로 비슷한 연령, 지위, 학력, 사회계층의 조건을 갖춰 유사한 지위(status)를 가진 주인공들로 비교적 동등한 위치인 직장동료나 친구들과의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사전에 밝히는 바이다. 확실히 등장인물의 언어는 작품의 분위기나 인물의 성격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기서의 분석은 가능한 한 순수하게 남성과 여성의 다른 발화양식의 견지에서 분석하고 조사하는데 초점을 잡으려 하였다.

다음 3.2에서는 각 작품별 주인공들과 줄거리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3.3에서는 사전연구가 이루어졌던 5가지 변항들 중, 감탄사, 강조사, 장벽, 의문문, 부가의문문에 대하여 시트콤 Friends 에피소드 35편과 영화 4편을 통한 남녀간 발화횟수와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발화횟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남자, 여자 주인공들의 전체 발화수는 감안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대상 작품인 시트콤과 영화의 담화에서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독백형식이 아닌 두 사람 이상 모여 서로 주고받는 대화형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남녀 주인공들의 발화양이 비슷하다는 판단하에 조사하지 않았다.

3.2. 분석 대상 작품

이 항에서는 작품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분석대상 작품 5편에 대한 남녀 주인공들과 작품 줄거리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3.2.1 Friends

시트콤 Friends는 6명의 친구들(남: 로스, 찬들러, 조이 / 여: 피비, 레이첼, 모니카)이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함께 살아가며 일어나는 일상의 해프닝과 에피소드로 구성되었다. 그 중 로스와 모니카는 친동기간이고, 레이첼은 모니카의 고등학교 동창이며, 로스와 찬들러는 같은 대학 출신이다. 나머지 인물들 중 조이는 찬들러와 현 룸메이트 사이이고, 피비는 모니카의 전룸메이트였던 인연으로 만나 모두들 둘도 없는 친구사이가 된다.

다음은 극중 인물들의 성격과 직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a. 로스 : 꼼꼼한 성격에 수줍음이 많고, 마음이 여리며 약한 고고학자.
- b. 찬들러 : 조금은 잘난 체 하지만 유머감각이 뛰어나며, 마음이 여린 정보처리사(데이터 프로세서).
- c. 조이 : 여자와 스포츠, 뉴욕,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다소 지적인 면이 떨어지는 배우 겸 모델.
- d. 모니카 : 깔끔하고 질서정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싫어하는 성격의 요리사.
- e. 피비 : 낙천적이고 영적이며, 엉뚱한 면이 많은 포크 싱어 겸 안마치료사.
- f. 레이첼 : 부잣집 딸로 자라 독립심이 부족하고, 감정이 풍부한 웨이트리스.

3.2.2 Before Sunrise

소르본느 대학생인 셸린느는 부다페스트에 사는 할머니를 만나고, 가을 학기 개강에 맞춰 파리로 돌아가는 길이다. 셸린느는 옆자리의 독일인 부부가 시끄럽게 말다툼하는 소리를 피해 뒷자석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거기서 제시라는 미국인 청년과 우연히 얘기를 나누게 된다. 제시는 마드리드에 유학 온 여자 친구를 만나려고 유럽에 왔다가 오히려 실연의 상처만 안고, 다음날 떠나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비엔나로 가고 있는 중이다.

아직도 꿈꾸는 소년같은 제시와 감수성이 풍부한 셸린느는 몇 마디 나누지 않은 사이에 서로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짧은 시간동안 자신들이 갖고 있는 많은 생각들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 어느덧 비엔나 역에 도착한다. 헤어짐을 아쉬워하던 제시는 셸린느에게 같이 내릴 것을 제의하고, 셸린느는 제시와 함께 비엔나에서 하루를 보내게 된다. 예기치 못한 만남과 단 하루밤의 동행에서 두 사람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실연의 아픔, 결혼과 인생의 의미, 죽음 등에 대해 진지한 얘기를 나누며, 젊음이다운 열정과 순수함으로 풋풋한 사랑에 빠지게 된다. 밤새 비엔나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이, 제시는 미국으로 셸린느는 파리로 떠나야할 날이 밝아오고, 너무나 우연하고 짧은 만남 속에서 싹튼 사랑의 감정에 확신을 못하며 주저하던 두 사람은 끝내 서로에 대한 절실한 감정을 이성의 밑바닥에 꼭꼭 숨긴 채 6개월 후에 그들이 헤어진 장소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이별을 한다는 이야기이다.

3.2.3 Sleepless in Seattle

행복한 가정을 꾸리던 샘의 가족에게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닥친다. 자상하고 따뜻했던 샘은 우울하고, 말없는 사람으로 변해 버리고, 한편 애니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월터를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그와 약혼했음을 발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며칠 후 집으로 차를 몰고 돌아가던 중 애니는 라디오를 통해 우연히 샘이 죽은 아내에 대한 사랑을 회상하는 내용을 듣게 되는데 샘의 아들 조나가 아내를 잃고 실의에 빠진 아버지를 보다 못해 라디오 상담프로그램에 전화를 걸었던 것이었다. 애니는 샘이 자신의 운명적인 짝이 아닐까 궁금해하고, 운명의 남자가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월터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식어간다. 애니는 샘이 자신의 인연인지 확인하기 위해 월터를 속이고 멀리 시애틀까지 날아가서, 이들 부자의 다정스런 모습을 보고 흐뭇해 하지만, 다른 여자를 만나는 실망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고 오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다.

운명적인 만남이란 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애니는 다시 월터에게 마음을 돌리려 하지만 이내 불가능하다는 걸 확인하게 되며 월터에게 작별을 고하고, 드디어 아들 조나가 샘을 가장하여 보낸 편지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엠파이어스테이츠 빌딩에서 이들 부자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린다.

3.2.4 How to Lose A Guy in 10 Days

여성잡지 칼럼니스트인 앤디는 기사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해내야 한다.

데이트 도중 여러 가지 실수로 남자에게 버림받는 여자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하여 열흘 안에 기사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녀의 임무는 다름 아닌 '10일 안에 남자친구에게 차이는 법'에 대한 칼럼을 쓰는 것이다.

그녀가 할 일은 멋진 남자를 찾아,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한 후, 갖은 방법으로 데이트를 망쳐 남자에게 차여야만 하는 것이다. 앤디의 프로젝트 희생양은 불행하게도 잘 나가는 광고 회사의 직원인 벤자민이 선택되는데, 그는 마침 다이아몬드 회사의 광고 피치를 따내기 위하여 광고주가 지목하는 한 여성을 10일 안에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그 지목 받은 여성은 다름 아닌 칼럼니스트 앤디였다. 이제 이 둘은 각자가 맡은바 임무를 해내려는 그들의 첫 만남에서부터 엉뚱한 데이트가 이어지기 시작한다.

10일 안에, 만난 남자에게 버림받아야 하는 앤디는 모든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의 모습들을 벤자민에게 보여주며 차이기를 바라고, 반대로 벤자민은 앤디가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하여 그녀의 모든 행동을 있는 힘껏 참고 견디며 10일을 버틴다. 그러나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인지 의도하지 않게, 벤자민의 가족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 앤디는 그에게 진실한 사랑의 감정을 조금씩 느끼게 되고 벤자민 또한 광고를 따내기 위한 내기이기보다 진심으로 그녀와의 데이트를 즐기며 앤디를 조금씩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에 대한 진심을 알기도 전에 그들의 서로 다른 속내를 알아버리게 돼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지만, 결국 앤디가 벤자민을 사랑하게 된 스토리가 잡지의 칼럼기사로 나가고, 이 기사를 읽은 벤자민이 어렵게 앤디를 찾아내면서, 둘은 진정한 연인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3.2.5 A Lot Like Love

이 영화는 우연한 기회에 친구가 되어 가쁜 우정과, 그 후 오랫동안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랑 사이에서의 남녀의 애매한 관계와 그들의 운명, 사랑 등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로, 7년 전 LA발 뉴욕행 비행기에서 만나 서로가 어울릴 수 없는 최악의 상대임을 단언하는 올리버와 에밀리리의 관계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이다. 우유부단하고 심약한 올리버와 거칠고 카리스마가 있으며 독립심이 강한 에밀리리는 첫 만남부터 예사롭지 않게 시작하는데, 그 후 7년 동안 그들의 관계는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언제나 타이밍은 좋지 않다. 서로 다른 연인과 다투고, 일로 고민하고, 이별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의 우연한 만남은 이제 서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진실한 친구로서의 관계로 발전한다. 불행으로 끝나버리지 않을 관계와 사랑을 찾아 나서면서, 올리버와 에밀리리는 7년이란 세월이 흐른 이후에야 자신들이 진정으로 느끼고 있는 감정이 사랑과 흡사한 그 무엇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둘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남녀가 된다.

3.3 시트콤과 영화를 통해 살펴본 남녀간 언어차이

다음은 분석작품에서 나타난 5가지 변항들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발화횟수와 그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감탄사에 대하여 알아보자.

3.3.1 감탄사

감탄사는 화자의 감정을 보다 더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분석작품에서 나타난 남녀간 발화 빈도수는 아래 <표 3>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3> 시트콤과 영화에 나타난 남녀간 감탄사 발화횟수

| 작품 \ 성별 | 남성 | 여성 |
|---------------------------------|------|------|
| a. Friends | 42회 | 160회 |
| b. Before Sunrise | 28회 | 30회 |
| c. Sleepless in Seattle | 17회 | 8회 |
| d. How To Lose A Guy in 10 Days | 68회 | 87회 |
| e. A lot like love | 21회 | 23회 |
| Total | 176회 | 308회 |

<표 3>의 결과를 살펴보면, Sleepless in Seattle을 제외한 네 개의 작품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감탄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과 여성이 사용한 감탄사의 총 발화횟수를 살펴보면 남성이 176회, 여성이 308회로 여성이 월등히 많은 횟수의 감탄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감탄사를 통해 기쁘고 흥분하였을 때의 감정을 표현하는, 여성의 특징이 잘 나타난 예문을 살펴보자.

- (14) a. Rachel : Ross kissed me!
b. Phoebe : No!! **Agh...**
c. Monica :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d. Rachel : It was unbelievable!!!
e. Monica :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Season 2, Episode 8 " The one with the list " 중에서]

레이첼이 로스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이미 로스에게는 다른 여자 친구가 생기고 만다. 이에 낙담하던 그녀에게 마침내 로스가 마음을 열고, 그들은 레이첼이 근무하는 카페에서 뜨거운 입맞춤을 하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다. 집에 돌아온 레이첼이 모니카와 피비에게 a. “로스가 나한테 키스했어” 라고 고백하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에 놀란 피비가 b. “아냐, **악~**”하고 소리를 지르고, 피비와 모니카는 자신의 일처럼 떨 듯이 기뻐하며 흥분하는데, 특히 로스와 레이첼이 서로 사귀길 바랬던 로스의 여동생 모니카는 놀라고 기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c. 감탄사 “**oh my god**” 을 연발한다. 레이첼이 d. “믿어지지 않았어.” 라고 말하며 황홀해하자, 그녀의 말에 더욱 더 흥분한 모니카는 또 다시 e. “**oh my god**” 을 연달아 외친다.

다음은 동일한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감탄사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경우를 Before Sunrise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 (15) a. Selene : **Uh-Oh,Uh-Oh.**
 b. Jessy : What? what?
 c. Selene : I just made eye contact.
 d. Jessy : She's not coming over here.
 e. Selene : Yes, She is.
 f. Jessy : **Oh, shit,** oh no.
 g. Selene : **Oh my god.** You want your palm read?

제시와 셀린느는 노천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우연히 셀린느가 카페의 다른 손님의 손금을 보던 집시여인과 눈이 마주친다. 순간 당황스러운 셀린느는 a. “어,어” 하며 감탄사 uh-oh를 반복 사용하고, 제시가 b. “왜 그래?” 하고 묻자, 그녀는 c. “손금을 보는 집시여인과 눈이 마주쳤어” 라고 대답한다. 그 말에 제시는 d. “이쪽으로 오진 않겠지.” 라고 말하자, 셀린느는 e. “아니 오고 있어” 라고 말한다. 그녀의 말에 당황한 제시가 거친 간투사 **shit**을 사용하여 f. “오! 빌어먹을 오 안돼!” 라고 외치지만 셀린느는 완화된 감탄사 **oh my god**을 사용하며 g. “이런, 너 손금점 보고 싶니?” 라고 제시에게 묻는다.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인 제시는 강하고 거친 감탄사인 **oh shit**을 사용한 반면, 여성인 셀린느는 완화된 감탄사인 **oh my god**을 사용하였는데, 이들 남녀가 서로 다른 간투사를 사용하게 된 원인으로는 2.2.1 감탄사의 사전 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성과 여성에 대해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사회의 태도와 그로 인해 야기된 불평등과 차별로 인해 남성과 여성이 다른 방법

으로 간투사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는 Lakoff(1975)의 주장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 하겠다. 여성인 셸린느는 사회적으로 고정화된 여성의 역할에 합당한 언어 사용에 대해 보이지 않는 사회적, 문화적 억압으로 인하여 그저 놀라움을 표시하는 완화된 감탄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화 How to Lose A Guy in 10 Days에서도 남자주인공 벤이 극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강하고 거칠고 감탄사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여과하지 않고 표현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16) a. Anndy : Thank you sweetheart.

b. Ben : Thank you for understanding.

c. Anndy : I love you, Binky.. but I don't have to like you right now.

d. Ben : Thank you Anndy.

(She waves her hand and disappears soon.)

e. Ben : Ahhhhh,, **damn it! S-s-shit!!!**

10일안에 남자에게 채어야 하는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앤디는 남자들이 싫어할 만한 짓은 무엇이든 하고, 참다못한 벤은 그녀에게 결별을 선언한다. 그러나 그들의 결별장면을 목격한 벤의 친구들과 직장동료들이 4일만 더 참으면 광고수주를 딸 수 있지 않냐고 벤을 설득하자, 결국 벤은 앤디에게 용서와 사과를 구하고, 헤어지지 말자고 애원한다. 위 (16)의 대화는 벤의 결별 선언에 화가 난 척 하며 길을 나서는 앤디를 붙잡고 사정하는 그에게 결국 앤디가 사과를 받아들이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앤디가 a. “고마워 자기” 라고 말하자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참으며 벤은 미소띤 얼굴로 b. “이해해 줘서 고마워” 라고 말한다. 앤디가 c. “사랑해 자기, 근데 지금은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이라고 하자 벤은 여전히 억지웃음을 띤 채, d. “고마워 앤디” 라고 말한다. 그러나 헤어진 앤디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된 순간 벤은 e. “**제기랄, 엉병할**” 이라는 의미의 **damn it**과 **shit**을 강하게 외치며 그동안 참았던 짜증과 분노를 거센 감탄사를 이용하여 분출한다.

감탄사 발화 출현도 결과에서 주시할 점은 영화 *Sleepless in Seattle*에서만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감탄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내를 잃고 실의에 빠져있어 매사에 예민하고, 다소 신경질적인 남자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보다 적나라하게 표현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성이 내재된 것으로 감탄사 발화에 대한 성별 역전현상이 발생한 경우라 할 수 있겠다. 아래 (17), (18)를 살펴보자.

(17) a. Sam : **Jesus**, are re we on the air? Jonah, **for God’s sake!**

b. Jonah : Don’t be mad at me, Dad.

아내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아빠 샘을 위해 아들인 조나가 라디오 상담프로그램에 전화를 걸어 샘이 상담가로부터 카운셀링을 받도록 한다. 위 (17)은 생각지도 못한 일에 당황한 샘이 조나에게 a. “**제기랄**, 우리 얘기가 지금 라디오 방송으로 나가는 거니? 조나, **제발!**” 이라고 소리치자, 아빠에게 혼날까봐 겁이 난 조나는 b. “화내지 마세요. 아빠” 라고 말한다. a에서 보여지는 샘의 짧은 표현에서 그의 당황스럽고 불편한 심기가 감탄사를 통해 좀 더 생생하게

진해짐을 알 수 있다. 아래 (18)는 샘이 조나와 언쟁을 벌이다 감정이 폭발하여 결국 거친 간투사를 사용하는 장면이다.

(18) a. Sam : Oh Jonah! **Shut up!!**

b. Jonah : Shut up? Shut up?

Mom never say shut up to me.

Mom never yelled at me.

c. Sam: Conversation is finished.

아내를 잃고, 커다란 상실감에 빠져 있던 샘은 빅토리아라는 여성을 만나고, 그녀와 주말여행을 가기로 하지만, 조나는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아 샘의 심기를 건드린다. 결국 샘과 조나는 마찰을 빚고, 화가 난 샘이 a. “오 조나! **입 닥쳐!!**” 라고 소리친다. 그의 말에 화가 난 조나가 b. “엄마는 절대 나한테 입 닥쳐란 말 안했어요, 소리지른 적도 없었구요” 라고 말한다. 그러자 기분이 더욱 더 나빠진 샘은 c. “우리의 대화는 여기서 끝이야” 라고 소리친다. 위 (18)의 a는 화가 난 샘이 분노를 누르지 못하고 결국 아들 조나에게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강하고 거친 간투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남성들이 자신의 불편하거나 언짢은 심정을 보다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표 3>과 (14)~(18)까지의 시트콤과 영화에 나타난 감탄사를 살펴본 결과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자유롭고 빈번하게 감탄사를 사용하고, 남성은 자신의 감정을 보다 더 적나라하고 솔직하게 표현하기 위해 거친 감탄사

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감탄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풍부한 감정의 소유자인 여성들이 놀람이나 기쁨, 슬픔 등의 감정을 감탄사를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Lakoff(1975)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인데, 이러한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감탄사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순수한 여성의 고유 용어로서, 여성이 자신의 마음속에 내재된 자신의 감정을 가장 민감하고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변이요소라 할 수 있겠다.

3.3.2 so 강조표현

여성 자신이 자신의 과장된 감정을 보다 풍부하고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 남성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는 강조표현 so의 사용빈도수는 아래 <표 4>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4> 시트콤과 영화에 나타난 남녀간 so 강조표현 발화횟수

| 작품 | 성별 | 남성 | 여성 |
|---------------------------------|----|-----|------|
| a. Friends | | 37회 | 121회 |
| b. Before Sunrise | | 11회 | 30회 |
| c. Sleepless in Seattle | | 2회 | 4회 |
| d. How To Lose A Guy in 10 Days | | 3회 | 8회 |
| e. A Lot Like Love | | 0회 | 1회 |
| Total | | 53회 | 164회 |

위 <표 4>의 so 강조표현에 대한 남녀간 총 발화횟수를 살펴보면 남성이 53회, 여성이 164회로 여성이 강조표현 so에 대하여 남성보다 3배가 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목해야 할 점은 다섯 작품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과장표현법인 강조사 so를 사용했다는 점인데 먼저 분석작품에서 보여지는 여성들의 so+형용사, 부사 강조표현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 (19), (20)은 여자들끼리 모여 대화를 나누던 도중 사용된 강조표현에 대한 예문들이다.

(19) a. Phoebe : Isn't he great?

b. Rachel : He is **so** cute and he seems to like you **so** much.

c. Phoebe : I know. He is **so** sweet and **so** complicated, you know?

[Season 1, Episode 13 " The one with the boobies " 중에서]

위 예문 (19)은 피비가 막 사귀기 시작한 남자친구 로저를 친구들에게 소개한 후 레이첼과 피비, 모니카가 모여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 대화로 시작한다. 먼저 피비가 a. “그이 멋지지 않니?” 라고 친구들에게 묻자, 레이첼은 b. “그래, **너무** 귀엽고 너를 **아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보여” 라고 말한다. 여기서 레이첼은 **너무** 귀엽고, **아주** 많이라고 말하며 강조사 표현 **so**를 통해 그녀의 느낌을 과장되게 표현한다.

레이첼의 말에 피비는 c. “그러게, **아주** 다정하면서도, **좀** 복잡한 사람이야” 라고 대답하는데 이때 피비의 표현에서도 **아주** 다정하면서 **좀** 복잡하다는 표

현으로 역시 강조사 **so**가 두 번씩 사용된다.

다음 (20)은 배신감과 분노로 치를 떠는 두 여성의 대화도중 출현한 강조용법 표현들이다.

- (20) a. Rachel : No, oh I feel **so** stupid! Oh, I think about the other day with you guys and I was all "Oh Paolo, he is **so** great! he makes me feel." ugh!
- b. Phoebe : I'm **so** embarrassed, I'm the one he hit on!
- c. Rachel: Pheebs, If I had never met him, this never would have happened!
- d. Phoebe & Rachel : I'm **so** sorry! No, I'm sorry! No, I'm sorry!
No, I'm sorry!

[Season 1, Episode 12 " The one with the dozen lasagnas " 중에서]

레이첼의 남자친구 파올로가 피비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고민하던 피비는 결국 레이첼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다. 그녀의 충격적인 이야기에 너무나도 속상하고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레이첼은 극도로 흥분하여 a. “오! 내 자신이 **너무** 멍청하게 느껴져. 어젯밤 너희들이랑 있을 때 내가 그랬잖아, 오! 파올로 **정말** 멋져, 개는 나를...억” 이라고 말하며 강조표현 **so**를 사용하여 자신이 너무나도 괴롭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레이첼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피비 역시 속이 상하여 b. “나도 **너무** 당황스러워. 개가 작업 건

사람이 나잖아” 라고 말하고 결국 레이첼과 피비는 서로의 잘못이라고 사과하는데 d. “**정말** 미안해, 아냐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니깐, 미안해”를 연거푸 발화하며 상대방에 대한 미안한 심정을 반복적으로 표현한다. 위 (20)의 두 여성의 대화에서는 **너무**와 **정말**이라는 단어 so가 연속적으로 반복 사용되어 자신들의 흥분된 감정을 보다 더 적나라하고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

다음은 Before Sunrise에서 여성인 셀린느의 대사를 통해 나타난 so+형용사,부사 강조표현을 살펴보도록 하자.

(21) Selene : It really scared the hell out of me, because I thought he was **so** fine. And then he officially asked me out on a date, and you know I pretended I didn't like him. You know, I was, I was **so** afraid of what I might do. And he was **so** sexy, really...

위 (21) 예문은 이성에 대한 최초의 성적충동을 느낀 경험에 대해 말해 달라는 제시에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는 셀린느의 말 중 일부이다. 셀린느는 “난 정말 **너무** 무서웠어, 개가 **진짜** 멋지다고 생각했거든. 그 아이가 처음으로 데이트 신청했을 때 별로 흥미없는 척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너무** 무서웠거든. 게다가 걔 **아주** 섹시했어, 정말이야.” 라고 말한다.

이처럼 여성인 셀린느는 자신이 과거에 매력을 느꼈던 남자에 대해 얘기하면서 **진짜** 멋지다, **너무** 무섭다, **아주** 섹시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과장된 표현법 so를 세 번이나 사용한다.

Before Sunrise에서는 청자인 제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셀린느가 말을 하려다 중간에 멈추는 정지문장을 사용하는데 아래 (22)의 예문을 살펴보자.

(22) a. Jessy : Yeah, of course you do. You pay your money, you get to hear something that makes you feel good about yourself. If you want, maybe there's a seedy section of Vienna, we can go buy a hit of crack, you know. Would you like that? yeah?

b. Selene : You're **so**...[makes gesture to give impressive of wacko]

위 (22) 예문은 셀린느가 손금을 보고 난 후 점쟁이의 점괘가 맘에 들었다는 말을 하자 그녀의 언급에 대해 제시가 비꼬는 말로 시작한다. 제시는 a. “당연히 좋겠지. 너는 기분 좋게 해주는 얘기를 듣기 위해 돈을 지불한 거니깐 말이야, 만약 네가 원한다면 말이지, 아마 비엔나 어느 허름한 골목에 마약 파는 곳이 있을지 몰라, 찾아볼래? 그럴래?” 라고 말한다. 그의 엉뚱한 발언에 황당한 셀린느가 웃으며 b. “너 정말..” 이라고 말을 얼버무리고 손가락으로 ‘너는 싸이코야’ 라는 제스처를 취한다.

만약 반대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제시는 셀린느에게 “넌 정말 미친 사람 같아” 라고 직접발화형식을 취하겠지만 여성인 셀린느는 청자인 제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상대방의 발화로 인해 언짢은 심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황당한 표정과 몸짓으로 간접표현을 한 것이다.

위 (22)에서 나타난 셀린느의 정지문장은 2.2.2 강조표현의 사전연구에서 언

급한, 여성은 생각하지 않고 발화하기 때문에 정지문장을 사용한다는 Jespersen (1964)의 주장보다는, 의사소통시 청자를 배려하는 여성의 태도를 반영한 친밀감의 표현 때문이라는 김선희, 이석규(1992)의 주장에 해당하든 경우라 할 수 있겠다.

다음은 대화 도중에 고의로 과장된 어법을 사용하기 위해 강조사 so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How To Lose A Guy in 10 Days에서 찾아볼 수 있다.

- (23) a. Ben : Andie, this is Tony, and this is Thayer.
b. Anndy : Oh, yes.
c. Tony & Thayer : Hey.
d. Anndy : Benny Wenny's told me **so** much about you too.
e. Tony : Oh, well, Benny Wenny's said wonderful things about you, too.
f. Anndy : Oh, they don't look **so** simple-minded.

앤디는 사전에 연락도 없이 벤의 사무실에 찾아간다.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조건 그녀의 비위를 맞춰줘야 하는 임무를 띤 벤은 억지웃음을 지으며 그녀를 맞이하고 자신의 직장 동료들을 소개시켜 준다. 먼저 벤이 a. “앤디, 이쪽은 토니랑 테일러야” 라고 인사 시켜주자 앤디가 b. “오! 그렇구나” 라고 대답하고 d. “벤이 당신들 얘기를 정말 많이 해줬어요” 라고 말한다. 이 말에 토니 역시 그녀의 어투를 흉내내며 e. “오! 벤 역시 당신에 대해 좋은 얘기 많

이 해줬어요” 라고 화답한다. 곧 이어 고의로 문제를 일으키려는 의도에서 앤디는 벤에게 f. “오! 저 사람들 **그렇게** 단순한거 같아 보이진 않은데요” 라고 말하는데 위 (23)의 대화에서 앤디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기 위해 반복적인 감탄사 oh와 강조사 so를 이용하여 일부러 호들갑스럽고 과장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는 극화된 이미지이긴 하지만, 여성의 감정적이고 과장된 언어표현법을 보여준 경우라 할 수 있겠다.

영화 A lot like love에서는 조사 결과 와일드하고 거친 여자 주인공 에밀리가 단 1번의 강조사를 사용한 반면, 부드럽고, 소심한 남자 주인공인 올리버는 단 한번도 강조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4) a. Oliver: What are you doing?
b. Emily: I'm **so** sorry. I have to go.

오랜 세월동안 만남, 헤어짐, 재회, 또 다시 이별 등의 관계에 대한 시행착오를 거쳐 결국 올리버가 자신의 운명이라고 느낀 에밀리는 올리버에게 연락을 취하려 하지만, 친구인 미셸로부터 그가 곧 결혼할 거라는 잘못된 소식을 전해 듣는다.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그의 집에 찾아간 에밀리는 멀찌감치서 턱시도를 입은 그의 모습을 보고 오해하여, 돌아가려 하는 순간 올리버와 눈이 마주치게 된다. 당황한 에밀리가 서둘러 식장을 빠져나가려 하자,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뛰어온 올리버가 a. “뭐하는거야?” 라고 묻자, 그가 곧 결혼식을 올릴 신랑이라고 착각한 에밀리가 당황하여 b. “**정말** 미안해. 가야겠어” 라고 말한다.

극중 에밀리는 카리스마 있는 거침없는 성격의 소유자이지만 극도의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해지자 여성의 고유한 감정표현인 so 강조표현을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강조표현에 대한 작품분석 결과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강조, 과장된 표현법을 즐겨 사용하여 그 형용사나 부사의 의미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작가나 작품 분위기, 인물의 성격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변항들에도 불구하고, 모든 작품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강조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여성이 남성보다 자신의 감정을 보다 과장되고, 확대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3.3.3 장벽

장벽표현은 자신의 발화에 대한 불확실성과 자신감의 결여로 인해 사용된다고 하는데, 5개의 분석 대상 작품들에 나타난 장벽표현 빈도수는 다음 아래 <표 5>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5> 시트콤과 영화에 나타난 남녀간 장벽 발화횟수

| 작품 \ 성별 | 남성 | 여성 |
|---------------------------------|------|------|
| a. Friends | 309회 | 298회 |
| b. Before Sunrise | 154회 | 116회 |
| c. Sleepless in Seattle | 12회 | 13회 |
| d. How to Lose A Guy in 10 Days | 15회 | 25회 |
| e. A Lot Like Love | 25회 | 18회 |
| Total | 515회 | 470회 |

위 <표 5>에 나타난 장벽 발화 출현도를 살펴보면, Friends, Before Sunrise, A Lot Like Love는 남성이 더 많이 사용하였고 Sleepless in Seattle 과 How To Lose A Guy in 10 Days는 여성이 더 많은 장벽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총 발화횟수는 남성이 515회, 여성이 470회로 남성이 더 많이 발화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2.3 장벽에 대한 사전연구에서 여성이 자신의 발화에 대하여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 남성보다 장벽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사회언어학자들의 주장에 반하는 결과이다. 다음은 Friends에서 나타난 남성들간의 대화에서 출현하는 장벽표현에 대해 알아보자.

- (25) a. Joey : **Well**.. I'm helping out down at the N.Y.U. Med School with some research.
- b. Ross : (overhearing) What kind of research?
- c. Joey : Oh, just, **you know**.... science.
- d. Ross : Science. Yeah, **I think** I've heard of that.
- (everyone's interest is piqued, they all look over.)

[Season 1 , Episode 23 "The one where Rachel found out" 중에서]

조이는 챌들러에게만 살짝 a. “**음**, NYU 의과대학에서 하는 실험을 돕고 있어” 라고 말한다. 조이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아 약간 주저

하듯이 **well**을 사용하여 말문을 여는데, 이 말을 엿들은 로스가 b. “무슨 실험?” 이냐고 묻는다. 당황한 조이가 c. “어, 그냥 뭐, 과학실험” 이라고 대답을 얼버무리는데, 이때 조이는 자신이 참여하는 실험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고자 장벽표현 중 하나인 **you know**를 사용하여 대화를 종결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호기심이 발동한 로스가 d. “과학이라, 음..내 생각에, 나도 들어본 적이 있는거 같아” 라고 말하자, 다른 친구들의 관심까지 조이에게 집중되는데, 이때 정말 자신이 들어본 적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은 로스는 **I think**를 사용한다.

Before Sunrise에서도 남성화자가 뭔가 말하고 싶지 않은 의도로 인해 장벽표현을 사용하여 말을 흐리고, 더듬거리다 황설수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 (26) 통해 이러한 예를 살펴보자.

- (26) a. Selene : So, has this trip, around Europe, been good for you?
 b. Jesse : Yeah, sure, yeah, it's been, umm..it sucked. **you know**..
 c. Selene : What?
 d. Jesse : No, uh, it's had it's umm, **well**, i'll tell ya, **you know**, sitting **you know** for weeks on end, looking out the window has actually been **kind of** great.
 e. Selene : What do you mean?
 f. Jesse : **Well, you know**, for instance, you have ideas that you ordinarily wouldn't have.

위 (26)의 대화는 셀린느가 a. “그래서, 유럽을 돌아보니 좋던가요?” 라고 묻자, 제시는 b. “예, 물론이죠, **음**, 형편없더군요.” 라고 대답한다. 예상 밖의 대답에 당황한 셀린느가 c. “뭐라고요?” 라고 묻자 제시는 d. “어, **음**.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요, 몇 주 동안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는 건 참 좋았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의 말이 도통 이해가 가지 않은 셀린느가 e. “무슨 말이죠?” 라고 되묻자 제시는 f. “**음**, 그러니까, 가령, 평소에는 하지 못하던 생각들을 하게 되죠” 라고 말한다.

이 둘의 대화에서 a. 셀린느의 질문에 제시는 b. 머뭇거리고 망설이다가 결국 여행이 형편없다는 진심을 털어놓았는데, 사실 제시가 유럽에 오게 된 계기는 마드리드에 유학중이던 여자친구를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는 여자친구와 결국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는데, 결국 이번 여행이 그에게는 예상치 못했던 이별여행이 되었기에, 개인적으로 끔찍한 추억이 된 여행이지만,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된 셀린느에게 자신의 솔직한 속사정을 털어놓고 싶지 않아 우물쭈물거리며 더듬거리다 결국 어불성설하며 말을 돌려버린다. 이 둘의 대화에서 남성인 제시는 **you know**와 **well, kind of** 라는 울타리 표현을 사용하여 초면인 셀린느와 다소 조심스러우면서도, 형식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남성발화에서 나타나는 장벽표현을 사용한 언어형식의 예문들을 살펴보았다. <표 5>를 통하여, 여성이 더 많이 사용하는 발화표현이라 간주되었던 장벽표현이 조사 결과 남성이 더 많이 사용하는 역전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한 주된 원인으로 여성의 높아진 교육수준과 사회참여율의 확대와 증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지위와 권익의 상승으로 이어져 과거에

비해 여성들은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보다 당당하고 자신있게 개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 현상이 자연스럽게 언어발화형식에도 반영되어, 여성의 언어가 좀 더 직선적이고, 단언적인 남성표현으로 변하고, 반대로 남성의 언어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어투인 여성언어로 다가감으로써, 남성과 여성간의 언어 발화형식의 간격차이가 좁아지게 된 것이라 판단된다.

3.3.4 의문문

의문문은 대화상의 연속적 장치를 이루는 하나의 요소이고, 대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에 따라 사용 빈도수도 다르다고 한다.

아래 <표 6>은 시트콤과 영화에서의 남녀간 의문문 출현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6> 시트콤과 영화에 나타난 남녀간 의문문 발화횟수

| 작품 \ 성별 | 남성 | 여성 |
|---------------------------------|-------|-------|
| a. Friends | 1181회 | 1109회 |
| b. Before Sunrise | 68회 | 64회 |
| c. Sleepless in Seattle | 60회 | 42회 |
| d. How to Lose A Guy in 10 Days | 122회 | 70회 |
| e. A Lot Like Love | 25회 | 18회 |
| Total | 1456회 | 1303회 |

위 <표 6>의 결과를 살펴보면, 3.3.2 so 강조표현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는데, 강조표현은 모든 작품에서 여자들이 더 많이 사용한 결과가 나온 반면에, 의문문은 모든 대상 작품에서 남자들이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3.1 의문문에 대한 사전연구에서는 여러 사회언어학자들이 의문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은 의문문을 사용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표 6>의 결과를 살펴보면 총 발화횟수는 남성 1456회, 여성 1303회로 남자 주인공들이 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학자들의 연구결과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작품들에 나타난 의문문이 사용된 예문을 살펴 본 후 다른 결과가 도출된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Friends에서는 남자들이 자신의 행위나 판단이 옳다는 대답을 청자로부터 듣고자, 의문문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대화를 이어나가는 예문들을 찾을 수 있었다. 아래 (27), (28)의 예문을 살펴보자.

(27) a. Ross : **Hey, Is Chandler here?**

b. Joey : Yeah.

(Ross drags Joey into the hall and slams the door.)

c. Ross : Okay, uh, about last night, um, Chandler.. you didn't tell..

(Joey shakes his head) Okay, cause I'm thinking we don't need to tell Chandler, I mean, it was just a kiss, **right?**

One kiss? No big deal? Right?

[Season 1, Episode 11 " The One With Mrs. Bing " 중에서]

지난밤 술김에 로스가 챌들러의 엄마와 키스를 하는 모습을 우연히 조이가 목격하는데, 위 (27)의 예문은 지난밤의 해프닝 때문에 고민하던 로스가 챌들러와 조이의 아파트를 방문 후 조이가 나누는 대화를 발췌한 것이다. 긴장된 얼굴의 로스가 조이에게 a. “**챌들러 집에 있어?**” 라고 묻자, 조이는 통명스럽게 b. “응” 이라고 대답한다. 놀란 로스가 조이를 집 밖으로 끌어낸 후 c. “응, 음. 내가 생각해 봤는데 어젯밤일 챌들러에게 말하지 않았지? 어. 왜냐하면 챌들러에게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 내 말은 그냥 단순한 키스였잖아. **그치? 단 한번? 문제 없는거지? 내 말 맞지?**” 라고 조이에게 묻는다. 지난 밤에 일어난 사건이 당황스럽고, 혹시나 챌들러가 알까 노심초사 걱정되는 로스는 조이로부터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대답을 듣고자 연속적 의문문을 발화하는데 c의 로스의 발화를 통하여 그가 얼마나 긴장하고 걱정을 하는지를 질문형식의 발화에서 느낄 수 있다.

아래 (28)의 예문 역시 화자가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대답을 청자로부터 듣기 위해 계속적으로 의문문을 사용한 경우이다.

(28) a. Joey : That's how they do pants! First they go up one side, they move it over, then they go up the other side, they move it back, and then they do the rear. (Chandler and Ross stare

at him.) **What?** Ross, Ross **Would you tell him? Isn't that how they measure pants?**

b. Ross : Yes, yes it is. In prison! What's matter with you?

c. Joey : **What? That's not?** (Realizes) Oh my god.

[Season 2, Episode 1 " The one with Ross' New Girlfriend " 중에서]

위 (28)의 대화는 조이가 소개해준 양복재단사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화가 잔뜩 난 쉐들러가 조이에게 따지자, 조이는 성추행이 아니라고 설득하는 말로 시작한다. 흥분한 쉐들러에게 조이는 a. “왜 그래! 원래 다 그렇게 하는거야, 먼저 한쪽을 채고 나서 다른 쪽도 똑같이 채는거야. 반대로 올라가서 똑같이 채고, 그 답에 엉덩이쪽을 채는거라구. **뭐야? 로스, 로스. 쉐들러한테 말 좀 해줄래? 원래 바지치수 그렇게 채는거 아니야?**” 라고 묻자, 황당한 표정의 로스가 b. “응. 그렇게 하는거 맞아. 감옥에서는! 너 도대체 왜 그런거야?” 라고 되묻는다. 당황한 조이가 c. “**뭐야? 원래 그렇게 하는게 아니야?** 이럴수가” 라고 말하며 놀란 감정을 숨기지 못한다.

위의 (27), (28)의 남자들간의 대화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차례 의문문 형식의 발화를 통하여 청자로 하여금 화자의 의견에 동의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29)은 화자의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기 싫어하는 청자로 하여금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의문문이 사용된 경우이다.

- (29) a. Jesse : **Something about me bugs you?**
 b. Selene : No.
 c. Jesse : It's all right. Tell me. **What is it? What about me bugs you?**
 d. Selene : Nothing. nothing at all.
 e. Jesse : Well, **if it had to be something, what would it be?**

위 (29)의 대화는 제시가 셀린느에게 a. “내가 너를 화나게 만드는게 있니?” 라고 묻자, 셀린느는 b. “없어” 라고 딱 잘라 대답하지만 제시는 c. “괜찮아. 말해. 뭐야? 너를 화나게 만드는 게 뭐냐구?” 라고 말하며 계속 질문을 한다. 그러자 셀린느는 당황스런 미소를 지으며 d. “없어, 전혀 없다니까” 라고 대답하는데, 어떻게든 셀린느로부터 자신의 단점을 듣고 싶은 제시는 질문의 형태를 바꿔서 e. “음, 만약 있어야 한다면 그건 뭘까?” 라고 묻는다.

이처럼 대답을 원치 않는 질문에 대해 남성화자가 반복적인 의문문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답을 유도하게 하는 경우를 영화 A lot like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 (30) a. Oliver : **And the latest breakup? What does he do?**
 b. Emily : ...
 c. Oliver : **Is he a baseball player or a cosmonaut?**
 d. Emily : Who said I had a breakup?
 e. Oliver : You did. In you kitchen during your hypoglycemic rant.

f. Emily : ...

g. Oliver : **So?** Spill it. **Who's the guy?**

h. Emily : I'm not telling you.

i. Oliver : **Did you dumped him?** No, he dumped you.

뉴욕에서의 짧은 만남 이후 그들의 고향인 LA에서 3년만에 재회를 한 올리버와 에밀리. 그들은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다시 허물없는 친구같은 사이가 된다. 위 (30)의 대화는 에밀리가 최근에 헤어진 남자가 궁금한 올리버가 여러 번의 질문을 반복하여 답변을 유도하려 하지만, 아직 마음의 상처가 채가지지 않은 에밀리는 아무런 언급도 하려 하지 않는 장면이다. 먼저 올리버가 a. “**최근에 헤어진건 언제야? 뭐하는 사람이구?**” 라고 묻지만 에밀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다. 다시 올리버가 c. “**야구선수야? 우주비행사야?**” 라고 질문하는데 여기서 올리버는 구체적인 직업까지 언급하며 에밀리로부터의 답변을 유도하려 하지만, 에밀리는 d. “내가 최근에 깨졌다고 누가 그래?” 라고 되묻고 그녀의 말에 올리버는 e. “주방에 널린 고열량 간식거리를 보면 알 수 있지” 라고 말한다.

그의 말에 자신의 속사정을 들킨 것처럼 움찔하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키는 에밀리를 보고, 올리버는 g. “**그래서? 털어나봐, 누구냐니깐?**” 이라며 계속 집요하게 캐묻지만, 에밀리는 h. “너한테 말 안해” 라며 얘기하지 않겠다는 확고부동한 자신의 의사를 밝힌다.

그녀의 이러한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올리버는 미소를 지으며 i. “**네가 찼니?** 아니네, 그 사람이 널 찬 거구나” 라고 자문자답 형식의 언

어를 구사하며 에밀리로부터의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한다.

이렇듯 의문문은 2.3.1 의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보를 요구하고,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분석 결과 불확실한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었으며, 답변을 하길 원치 않는 청자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 분석 결과 남자들이 의문문이 더 많이 사용하였다는 점은 남성의 언어해석구조의 특성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는 여성들과는 달리, 정보를 전달하고 교환하는 것이 대화의 주된 목적인 남성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보와 판단을 상대방에게 확인하려 한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남성들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면 지속적인 질문형식의 문장발화를 이루어 결국 의문점에 대한 답을 얻는, 경쟁적인 대화 체제를 구축하기 때문에 여성보다 더 많은 의문문 발화를 이룬다고 판단된다.

3.3.5 부가의문문

부가의문문에 대한 사전연구가 이뤄졌던 2.3.2에서는 부가의문문의 다양한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고, 여성이 부가의문문을 더 많이 발화한다는 연구결과와, 성별이 발화횟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아래의 <표 7>은 분석 대상작품에서 나타난 성별에 따른 부가의문문의 발화 출현도이다.

<표 7> 시트콤과 영화에 나타난 남녀간 부가의문문 발화횟수

| 작품 \ 성별 | 남성 | 여성 |
|---------------------------------|-----|-----|
| a. Friends | 10회 | 10회 |
| b. Before sunrise | 3회 | 0회 |
| c. Sleepless in Seattle | 1회 | 3회 |
| d. How to lose a guy in 10 days | 4회 | 2회 |
| e. A lot like love | 1회 | 0회 |
| Total | 19회 | 15회 |

<표 7>의 결과를 살펴보면 Friends는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횟수의 부가의문문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Before sunrise, How to lose a guy in 10 days, A lot like love는 남성이 더 많이 발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Sleepless in Seattle에서만 여성이 더 많은 발화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5개의 분석작품에 대한 부가의문문의 총 발화수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자신감 결여와 자신의 주장 완화를 위해 남성보다 부가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Lakoff(1975) 주장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이다.

더욱 주목할 사항은 Before sunrise와 A lot like love의 여자주인공은 단 한번도 부가의문문을 사용하지 않았고, 시트콤 Friends 에피소드 35편 가운데에서도 여자 주인공 중 한명인 피비가 단 한번도 부가의문문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가의문문의 사용이 성별에 좌우되지 않는

변항이라고 한 Dubois, Crouch(197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사전연구 2.3.2에서는 부가의문문의 다양한 기능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그 중 Holmes(1984)는 성별에 따라 부가의문문의 기능을 다르게 사용한다고 하였다. 2.3.2의 <표 2>에서 보여준 그의 연구 결과에서는 남성은 자신의 발화에 대한 확인을 위해, 여성은 청자를 대화에 참여시키기 위해 각각 부가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연구자의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확인적 부가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8>을 살펴보자.

<표 8> 시트콤과 영화에 나타난 남성과 여성이 사용하는 부가의문문 기능

| 부가의문문 개수 | | |
|----------|-----|-----|
| 의미유형 | 남성 | 여성 |
| 확인적 | 13번 | 11번 |
| 정의적 | | |
| 촉진적 | 3번 | 3번 |
| 완화적 | 3번 | 1번 |
| 합계 | 19번 | 15번 |

위 <표 8>에 의하면 남자, 여자 모두 자신의 발화를 확인하기 위한 화자지

항적 부가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총 발화횟수 19번 중 13번, 여성 총 발화횟수 15번 중 11번이 불확실한 자기진술에 대한 정보요구와 자기확신이 결여되었을 때 사용한다는 확인적 부가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부가의문문의 기능이 성별에 따라 결정되고 구분되어지는 항목이 아니라 화자가 처한 상황과 어법에 따라 성별에 상관없이 사용하는 변항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은 분석 작품에서 나타나는 부가의문문의 발화와 그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자기 확신이 없는 불확실한 발화에 대해 청자에게 승인을 구하거나, 청자에게 정보를 요구할 때 사용한다고 하는 확인적 부가의문문의 예를 살펴 보도록 하자.

- (31) a. Annie : I know, I know. I do not want to move to Seattle. But what I really don't want to do is end up always wondering what might have happened and knowing I could have done something. What do you think?
(Tom opens his mouth to say something, but before anything comes out, Annie fills the void)
- b. Annie : It's just cold feet, **isn't it?** Everyone panics before they get married, didn't you?

위 (31)은 영화 *Sleepless in Seattle*의 한 장면으로 여자 주인공인 애니가 생면부지의 남자인 샘을 그리워하다 결국 오빠인 톰의 사무실로 찾아가 고민

을 털어놓는 대화 중 일부분이다. 시애틀에 사는 남자를 그리워한다는 애니의 말에 톰은 1년중 거의 9개월은 비가 오는 곳이라고 말하고 그의 말에 애니는 a. “나도 알아. 시애틀로 이사가고 싶은 맘 없어, 근데 정말 내가 원치않는 건, 후회할까봐 걱정된다는 거야. 오빠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다. 톰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는 순간 애니는 b. “이건 단순히 겁 먹어서 그런거야, **그렇지?** 누구나 결혼 전엔 겁나잖아, 오빠도 그랬어?” 라며 자문자답 형식의 문장발화를 이룬다.

여기서 애니는 혼란스러운 자신의 감정에 대해 결혼전 증후군일꺼라고 자가 진단을 내리면서, 자신감이 결여된 불확실한 진술을 부가의문문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오빠인 톰에게서 그의 경험을 통한 답변을 얻길 바라고 있다.

두 번째로, 정의적 부가의문문 중 화자가 청자를 대화에 계속 참여시키고자 할 때 사용한다는 촉진적 기능의 부가의문문이 사용된 경우를 살펴보자.

- (32) a. Chandler : [Squirming] All right, let's get some perspective here, ok? These Things, they happen for a reason.
- b. Monica : Yeah, You!
- c. Chandler : All right, Phebe, back me up here, ok? You believe that karma crap, **don't you?**
- d. Phoebe : Yeah, by the way, good luck in your next life as a dung beetle.

[Season 2, Episode 8 " The one with the list " 중에서]

위 (32)는 챌러로 인해 레이첼과 로스가 극도로 사이가 나빠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친구들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챌러가 변명을 늘어놓는 장면이다. 챌러가 a. “생각해 봐, 이런 일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거야” 라고 말하자 모니카가 b. “그래 너잖아!” 라고 말하며 그를 원망한다. 당황한 챌러가 피비에게 c. “피비, 너가 날 좀 지지해 줘라, 응? 너 사후세계에 대해 믿지? **그렇지?**” 라고 묻자 피비는 d. “응, 근데 너 사후세계에 풍덩이로 태어날 테니 행운을 빌어” 라며 비꼰다.

위의 (32)의 c에서는 친구들의 비난을 한꺼번에 받게 된 챌러가 코너에 몰리자 다급한 마음에 자신을 지지해 줄 거라 믿는 피비를 대화에 참여시키고자 촉진적 기능의 부가의문문을 사용한 것이다.

세 번째로, 정의적 부가의문문의 두 번째 기능인 직접적 지시나 명령, 비판을 완화시키는 역할의 부가의문문에 대하여 찾아보았다.

- (33) a. Monica : It doesn't go with any of my stuff.
 b. Rachel : Well, what about my stuff?.
 c. Monica : You don't have any stuff.
 d. Rachel : You still think of it as your apartment, **don't you?**

[Season 2, Episode 3 "The one where Heckles dies" 중에서]

모니카와 레이첼이 사는 아파트 아래층에 살던 독거노인이 자신의 유품들을

그녀들에게 남기고 세상을 떠나자 주인공들은 그의 유품을 가지러 아랫집에 내려간다. 팬찮은 물건을 물색하던 중 레이첼은 맘에 드는 램프를 발견하고 모니카의 의견을 묻자, 모니카는 a. “내 물건들하고 안 어울려” 라고 말한다. 그녀의 말에 레이첼은 b. “음, 그럼 내 물건들하고는 어울려?” 라고 묻자 모니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c. “네 물건은 없잖아” 라고 대답한다. 감정이 상한 레이첼은 d. “너 여전히 네 아파트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렇지?**” 라고 묻는데 이때 레이첼은 모니카가 두 사람의 공동 아파트가 아닌 자신의 아파트로 생각한다면 부가의문문을 사용하여 그녀를 간접적으로 비난한다.

마지막으로, 비협조적인 청자로부터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사용된 부가의문문의 직접대면의 기능에 대한 예문은 아래 (34)를 통하여 알 수 있다.

(34) a. Ben : You know that this song is about you, **don't you?**

b. Anndy : No, no.

c. Ben : Because you're, you're so vain.

d. Ben : You do know the words so well, **don't you?**

(Anndy ignores what Ben says and walks forward to the door.)

벤은 앤디와 함께 다이아몬드 고객을 위한 파티장에 참석하고, 그 곳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알기 전에, 서로에게 이용당한 사실을 알게 된다. 배신감과 분노로 치를 떨던 앤디는 벤을 골탕먹일 요령으로 무대에 올라가 벤이 고객들을 위해 노래를 준비했다고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벤 역시 앤디에게 오해와 분노가 쌓여 있던 중인지라 고객들에게 앤디와 같이 듀엣곡을 준비

했다고 말하고, 얼떨결에 앤디는 벤과 함께 'You are so vain'이란 곡을 듀엣으로 부르는데, 노래 중간 앤디에게 화가 나 있는 벤이 a. “이 노래, 너를 위한 곡이야, **안 그래?**” 라고 소리지르듯 말하자, 역시 벤에게 잔뜩 화가 나 있는 앤디가 b. “아니, 아니야” 라고 말한다. 그러자 벤은 c. “너 정말, 자만심 가득한 인물이잖아” 라고 말한 후 d. “이 단어가 뭘 뜻하는지 아주 잘 알아? **안 그래?**” 라고 비꼰다. 앤디가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감정이 상한 벤은 다소 고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비협조적인 청자인 앤디로부터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연속하여 2번씩이나 부가의문문을 사용한다.

지금까지 분석작품들을 통한 부가의문문의 발화횟수와 각 특징들을 살펴보았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부가의문문을 사용한다는 것은 남성지배적, 위계적 사회에서 남녀평등 사회로 바뀌면서 사회와 문화가 변화하여 남성과 여성의 언어도 조금씩 바뀌어, 마침내 언어의 역전현상이 일어난 것이라 생각된다. 과거에 강인하고 씩씩하며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가 선호되던 시대에서, 섬세하고 다정하며, 여성스러운 느낌마저 드는 예쁜 남자가 주목받는 시대로 변하면서 그들의 언어구사도 다소 부드럽고, 공손한 여성의 언어쪽으로 많이 기울고, 반대로 양육과 가사일을 전담하던 여성들은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변화로 인해 남성들이 지배하던 사회로의 진출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언어구사를 모방하게 되어, 그로 인해 언어 형태도 다소 남성적으로 변한 결과 이러한 성별발화형태의 반대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 사려된다.

4.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남녀간의 언어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여, 남녀간 언어 차이 및 특성에 대한 생성요인과 사회언어학자들이 영어에서 여성어라고 규정한 언어형식을 중심으로 어휘와 문법상의 특징 중 5가지 변항들을 개관하였다. 또한 남녀간의 자연스러운 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 시트콤 Friends 에피소드 35편과 영화 4편을 통하여 감탄사, 강조표현, 장벽, 의문문, 부가의문문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언어 특징 및 발화 횟수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기존의 사회언어학자들이 여성어라고 특징지어졌던 언어현상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로 자신의 발화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확성을 단언할 수 없을 때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 여성이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울타리 표현은 조사 결과 남성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화를 지속하고, 주목을 받기 위해 여성이 더 많이 발화한다는 의문문은 5작품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작품 분석 결과 의문문은 자신의 행위나 판단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비협조적인 청자로부터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셋째, 자신감이 결여되고, 자신의 주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한다는 부가의문문 역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Holmes(1984)는 남성은 자신의 발화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가의문문을 사용하고, 여성은 청자로 하여금 대화에 참여하게 하고자 부가의문문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나, 조사 결과 성별에 관계없이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의 불확실성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부가의문문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여성 언어의 특징이라고 일컬었던 표현들이 조사결과 남성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주된 원인은 이미 언급하였던 것처럼 남성 지배사회와 문화의 시대에서 남녀평등 시대로 도래하면서 여성에 대한 교육이 확대되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여성의 사회 진출과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남성이 지배하였던 사회 전반에 대하여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강하고 단언적이며 직접적인 표현을 구사하는 남성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여성들이 답습하게 되어 결국 지금처럼 달라진 언어양상을 띠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시대가 변하면서 기존에 구축되었던 남성상, 여성상이 변모한 것도 하나의 이유라 여겨진다. 과거에 순종적이고, 조신하며, 육아에 전념하는 여성을 최고의 미덕이라 여겨졌던 시대에서 당당하고,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커리어우먼을 추구하는 시대로 바뀌면서 자연히 여성의 언어도 보다 자신감있고, 확실한 표현을 구축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존의 사회 언어학자들의 연구 시기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그들의 연구가 이뤄졌던 시기가 대체적으로 7, 80년대였기 때문에, 2006년인 현재와 비교하여 보수적이고, 여성을 통제하는 언어형식이 더 많았다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감탄사와 강조표현법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연구결과와 본고의 조사 결과가 일치하였는데, 과거나 현재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감탄사와 강조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풍부하고 솔직하며 과장된 표현방식이 여성고유의 언어형식이라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언어차이가 많이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비해 남성은 완곡하고, 조심스러운 여성의 언어에 다가섰다는 것이고, 반대로 여성은 남성의 강하고 단언적인 어법에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 대한 아쉬운 점은 연구자가 영어권 화자가 아닌 관계로, 계획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담화내용을 자료로 하여 남성과 여성의 언어 차이와 특징을 연구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끝으로, 시트콤과 영화를 이용하여 영어수업을 실시할 경우, 수업을 지도하기 앞서 교사는 본 논문에서 연구,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정확한 성별 언어 특성을 사전에 인지한 후 학생들을 지도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가능한 학생들과 동일한 성별의 주인공들이 자신의 성별에 걸맞는 화법을 구사하는 시트콤이나 영화를 수업자료로 제공하여 각 성별에 적합한 어법과 언어형식을 습득하도록 지도하였으면 한다. 그리하여 교사는 학생들이 영어로 담화를 나눌 때, 잘못된 표현법과 언어양식을 취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보다 자연스러운 담화가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제시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고 자료

시트콤, 영화 대본

1. Jennifer Aniston, Courteney Cox Arquette, Lisa Kudrow, Matthew Perry, Matt Leblanc, David Schwimmer 의 Friends Season 1-Episode 23편, Season 2-Episode 12편.
2. Ethan Hawke, Julie Delpy의 Before sunrise.
3. Tom Hanks, Meg Ryan의 Sleepless in Seattle.
4. Matthew McConaughey, Kate Hudson의 How to lose a guy in 10 days.
5. Ashton Kutcher, Amanda Peet의 A lot like love.

참고 문헌

- 김선희, 이석규. (1992). “남성어, 여성어에 관한 연구”. *어문학연구* 2.1: 36-62.
- 유경애. (1987). “현대 영어의 여성어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1
- Bennet, S., and B. Weinsberg. (1975). "Sexual characteristics of pre-adolescent children's voices."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65: 179
- Bolinger, D. (1975). *Aspect of language*. NY: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Bonvillain, N. (2002). *Language, culture and communication* 4th Edition: Prentice hall.
- Dede, B., M Gerritsen and D. D. Hann. (1979). " Speech difference between women and men: on the wrong track? " *Language in Society* 8: 33-50
- Dubois, B. L., and I. Crouch. (1975). "The question of tag-question in women's speech: They don't really use more of them, do they?" *Language in society* 4: 289-294.
- Farb, P. (1980). *Word play*. New York: Knopf.
- Fischer, J. (1958). "Social Influences on the choice of a linguistic variant." *Word* 14: 47-56

- Fishman, P. (1980). *Conversational insecurity* in Howard Giles, W.P. Robinson & P.M. Smith(eds.). *Language: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Oxford: Pergamon Press:127-132
- Graddol, D.J and Swann J. (1989). *Gender Voices*. Oxford, Basil Blackwell.
- Greenbaum, S. and R Quirk. (1990). *A student's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 New York: Longman.
- Holmes, J. (1984). "Hedging your bets and sitting on the fence: Some evidence for hedges as support structures." *Te Reo* 27:47-62.
- (1992).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New York: Longman Publishing.
- Jespersen. O. (1922). *Language: It's nature, development and origin*.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 Key. M. R. (1975). *Male / Female language* . Metuchen. NJ: Scarecrow Press.
- Kramarae. C. (1981). *Women and men speaking: Frame works for analysis*. Rowley, Mass: Newbury house.
- Labov, W. (1966).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English in New York City*. Washington, D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Lakoff, R. (1975). *Language and Woman's Place*. New York: Harper & Row.
- O'grady. (1989). *Contemporary linguistics*. NY: St Martin's Press.
- Preisler, B. (1986). *Linguistic sex roles in conversation*. Berlin: Mounon de

gruyter.

- Sachs, J. (1987). *Young children's language use in pretend pla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pir, E. (1929). "The status of linguistics as a science." *Language* 5: 207.
- Siegler, D. M., and R. S. Siegler.(1976). " Stereotypes of male's and
female's speech " *Psychological Report* 39: 167-170.
- Trudgill, P. (1972). "Sex, covert prestige and linguistic change in the urban
British English of Norwich." *Language in society* 1: 179-195
(1974). *Language and sex*. Sociolinguistics: An introduction
to language and society. Penguin Books.
- Wardhaugh, R. (1986).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London: Basil
black well.
- Wolfram, W. (1969). *A Sociolinguistic of Detroit Negro Speech*.
Washington, D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Penguin Books.

Abstract

Language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As Seen In American Sitcoms and Movies.

In Soo Jung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Before starting their classes, teachers should grasp the appropriate locutions of each sex to enable their students to realize the accurate locutions of each sex.

If this is done, students won't fall into the fallacy of making use of the opposite sex's locutions. If teachers make use of sitcoms and movies in their classes, they should have students speak English with the accurate locutions of each sex as shown on this thesi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oint out the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s language in English. To determine their

differences, first we had to survey the generative causes and characteristics in the different genderlects and 5 variations including interjections, intensifiers, hedges, questions, and tag questions among the vocabularies and grammars that sociolinguists have been researching and investigating.

To prove that previous scholar's assertions have been found in actual situations, we ha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utterance frequency of interjections, intensifiers, hedges, tag questions and questions in 35 episodes of the American sitcom "Friends" and 4 examples of American movies which primarily used everyday natural discourse.

We sought to identify whether the results of the analyzed works were in accord with those of previous sociolinguists' studies. In the event that different results were seen, we tried to discover reason for the result.

We discovered the following fact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Characteristics of male and female language have seen opposite results in some variations from those of previous studies through diachronic change. It was believed in sociolinguistic studies that women used more interjections, intensifiers, hedges, questions and

tag questions than men did.

However, my study shows that some variation such as hedges, questions and tag questions have been used more by men than women.

Due to the changed circumstances from a male dominant society to a male and female society of equality, women have much more opportunity for education and social activity than before. This appears to be the biggest reason in reducing the language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interlocutors.

As a result, in these circumstances, women have been forced to learn and take on the men's way of speaking, as exemplified in greater strength, directness and confidence. On the contrary, men have moved closer to the speaking manner of women as reflected in increased politeness, softness and cautiousness. Therefore the characteristic differences between men's and women's ways of speaking have been greatly narrowed.

However interjections and intensifiers continue to be used more by women than men and those variations seem to reflect a more feminine approach to speaking. This shows that the category of defining gender is still vali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generativ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genderlects and how some variations have been used more by men than women unlike what has been seen in previous study.